


 **교육-커리큘럼 안내**
24년 7월~9월 리딩엠 교육 및 커리큘럼

 **초·중등 섹션**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토론 한마당·세상을 읽는 즐거움**
초·중등 칼럼 수업 결과물

 **특별 섹션**
리딩엠발표토론심화수업 안내
리딩엠 주제별신문칼럼수업 안내

 **교사기고**
초등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

 **여름방학특강안내**
여름방학설명회, 시범수업 및 특강안내

Contents



[리딩엠 매거진M 표지모델]

앞줄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재인(도성초4)
심소윤(도성초4)
최서준(도성초4)
이래아(도성초4)
심은서(도성초4)

리딩엠 소식 02

리딩엠 홈페이지 리뉴얼

학부모 특독 04

2022년 ~ 2025년 변화된 교육정책,
알고 대비합시다

교육일정표 05

7월 ~ 9월 리딩엠 학원 일정 안내

설명회/시범수업/특강 06

리딩엠 여름방학 설명회/시범수업 및 특강 안내

특별한 프로그램 08

리딩엠 읽기 프로그램 "전집 읽어내기"
초등 저학년 독서와 글쓰기

커리큘럼 12

7월 ~ 9월 리딩엠 수업 교육과정

리딩엠 인스타그램 01

리딩엠 역삼교육센터 재원생 모음

인정받는 리딩엠 13

대한민국 교육대상 9년 연속수상

연혁·지점안내 50

리딩엠 연혁 및 전국 교육센터 지점안내

초등 섹션 16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중등 섹션 30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특별 섹션 38

주제별 신문칼럼 수업 안내
발표토론심화 수업 안내

토론한마당·세상을 읽는 즐거움 28

초등학생 칼럼 수업 결과물

토론한마당·세상을 읽는 즐거움 34

중학생 칼럼 수업 결과물

교사기고 44

초등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 / 이상준

리딩엠 온라인 46

온라인 매거진M / 리딩엠 블로그
공식 SNS / 비대면 라이브 수업

발행처 | (주)리딩엠
편집디자인 | 임선희

발행인 | 황종일 편집책임 | 이상준
디렉터 | 이상준, 최은정

[리딩엠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2 강남역슬루프라임 708호 | TEL : 02-537-2248

Magazine



우리가 꿈꾸는 세상

리딩엠 역삼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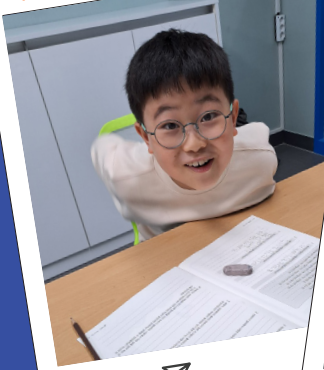


readingm.official



readingm.official

readingm.official



#열공 #정독 #독서지

readingm.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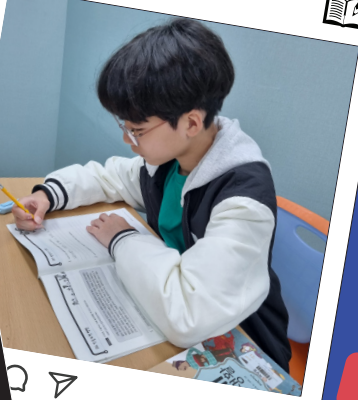
#리딩엠 #도서대출

readingm.official



#정독 #참삭지도 #역삼 리딩엠

readingm.official



#논술 #국어문법

readingm.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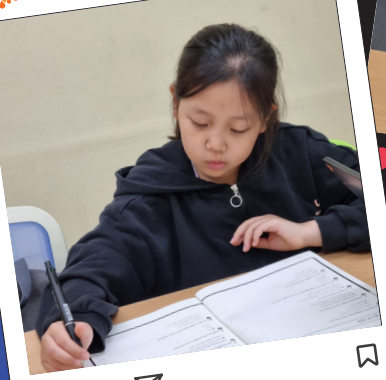
#친구 #도서관 #특강

readingm.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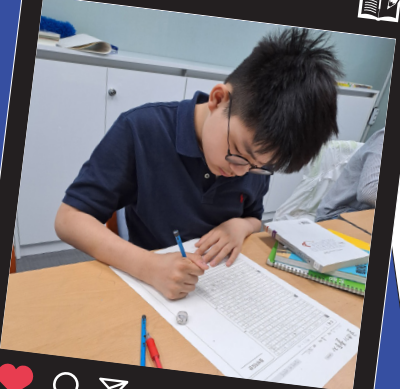
#신문칼럼 #세계적글쓰기

readingm.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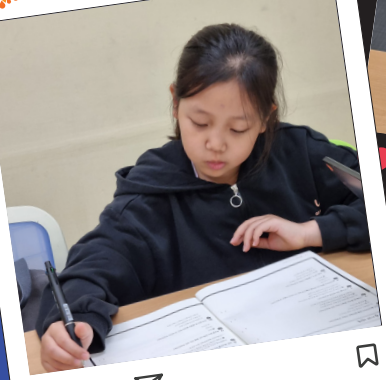
#필독도서 #칼럼수업 #선택도서

readingm.official



#공부 #책읽는습관 #학원스타그램

readingm.official



#필독도서 #칼럼수업 #선택도서

리딩엠

새 홈페이지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리딩엠 수업안내 상담등록 지도교사 가맹안내 알림소식

로그인 회원가입

책읽기와 글쓰기 정규수업

리딩엠의 모든 노하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교육센터에서 모둠수업을 진행합니다. 1주 1회 2시간 수업으로 말하기, 글쓰기, 첨삭지도를 진행하며
우리 아이의 어휘력, 배경지식, 사고력,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 1/4 >



정규수업안내



독서논술

풍부한 어휘력과 배경지식
토론과 글쓰기 능력
향상하는 수업



미래내국어

맞춤형 어휘, 속담과 관용구,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문장과
문법을 체계화, 초등중국어 학습과
연계



발표토론심화

정규수업 40주에
특수수업 5주 진행
학교에서 발표수업, 집합수업,
토론수업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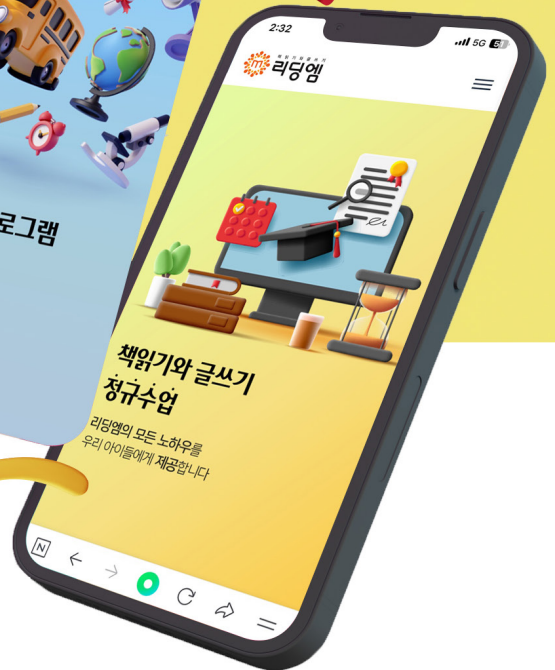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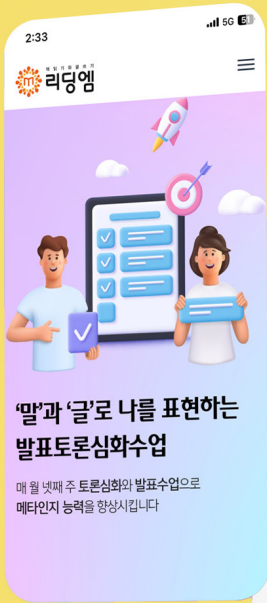
신문활용비문학

과제, 토론, 사색, 기록 등
주제별 비문학 지문과,
학교에서 발표수업, 집합수업,
무엇이든 물어보살
비문학 활용



초등저학년

책과 친해지고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가는
수업



수업내용, 진단하기, 체험수업, 교사양성, 교육칼럼 등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책임기와 글쓰기 리딩엠 학부모톡톡

2022년~2025년
변화된 교육정책
알고 대비합시다!

첫째

* 2022년부터 초3~초4의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의미) 놀이 등 활동중심 교과서로
발표, 토론, 협력 등이 강화됩니다.

둘째

* 2023년부터 초5~초6의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의미) 놀이 등 활동중심 교과서로
발표, 토론, 협력 등이 강화됩니다.

셋째

*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선택과목이 도입됩니다.

* (의미)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강화됩니다.

넷째

* 2024년부터
중학교 1년 자유학년제
한 학기 자유학기제로 바뀝니다.

* (의미) 1학년부터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등이 이뤄지고,
고등진학시 활용됩니다.

다섯째

*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교과학점제가 도입됩니다.

* 2028년 수능부터는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교육일정표

7월

- * 독서, 비문학 칼럼 그리고 글쓰기로 강화하는 비문학 배경지식과 문해력
- * 설명회/시범(체형)수업
- * 여름방학 색깔특강 신청접수
- * 전집읽어내기 방학특강 신청접수
- * 목적수업 : 탐구보고서 등
- * 특별 프로그램 : 전집읽어내기 (방학 중, 학기 중에도 진행)

8월

- * 독서, 비문학 칼럼 그리고 글쓰기로 강화하는 비문학 배경지식과 문해력
- * 여름방학 색깔특강
 - 책글첫걸음 /갈래별글쓰기/ 한국사/세계사/과학탐구보고서/전집읽어내기/발표토론심화수업/중등국어 기초완성,심화문법
- * 발표토론심화 수업
- * 목적수업 : 방학과제 등
- * 특별 프로그램 : 전집읽어내기 (방학 중, 학기 중에도 진행)

9월

- * 9월~11월까지 3개월 학년별 고급어휘 120개 익히기 특별기간
 - 과학/경제경영/기술IT/문화예술 등
- * 발표토론심화 수업
- * 목적수업 : 각종 교내외 대회
- * 특별 프로그램 : 전집읽어내기 (방학 중, 학기 중에도 진행)

초6~중3

<비문학주제별신문칼럼+필독도서>

중1~중3

<국어문법(중)>
<중간시험 1개월 전: 국어내신 대비반 운영>

+ 특별반 모집

JT특별반

- 대상 초3/초4/초5/초6/중1 ▶ 각 학년별 구성
- 반 구성 담당 교사 추천한 학생들로 구성
- 수업특징 융합영재 사고력 책읽기와 글쓰기
- 기대효과 최우수 학습능력 구축(기획능력/언어능력/사고능력/배경지식)
- 시작일 모듬 구성 완료 시

여름방학특강 전집읽어내기

- 대상 초등
- 수업특징 선택한 전집을 끝까지 완독하며 다양한 독서활동 진행
- 기대효과 배경지식의 확장, 꾸준한 읽기습관 형성과 독해력 향상 등
- 반 구성 월~금반(주 2회/ 주 3회 / 주 4-5 회 중 택 1)

설명회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확실히 잡고 싶다면?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최상의 학습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체계적인 독서활동

대상 초·중 학부모님

일시 7/ 2(화) 오전 10시30분
7/ 3(수) 오전 10시30분
7/ 9(화) 오전 10시30분
7/10(수) 오후 7시30분
7/17(수) 오후 7시30분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선착순! 예약필수)

설명회, 시범수업 참여후 등록시
2024년 8월 정규수업 원비 50% 할인



시범수업

책읽기와 글쓰기 정규프로그램

<초등1,2>
7/7(일) 오후 1시, 7/9(화) 오후 7시,
7/15(월) 오후 7시
<초등3,4>
7/2(화) 오후 7시, 7/8(월) 오후 7시,
7/21(일) 오후 1시
<초등5,6>
7/1(월) 오후 7시, 7/14(일) 오후 1시

신청 반드시 최소 3일전에 신청(책읽을 시간 필요)

신문칼럼 비문학

<초6~중1>
7/16(화) 오후 7시

여름방학 특강

책읽기와 글쓰기 정규프로그램

초등 책글첫걸음/갈래별글쓰기/과학탐구보고서/
자기소개서/한국사/세계사/발표토론심화수업
중등 한국사/세계사/과학탐구보고서/자기소개서
초등 월수반 개강/종강 7/24(수)~8/5(월)
초등 화목반 개강/종강 7/25(목)~8/6(화)
중등 월수반 개강/종강 7/24(수)~8/12(월)
중등 화목반 개강/종강 7/25(목)~8/13(화)
*기타 요일 개설 가능

전집읽어내기: 전집세트를 읽어내는 특강

초등부 개강/종강 7/24(수)~8/6(화)
*주 3회, 주 4-5회 중 선택 가능
중등부 개강/종강 7/24(수)~8/13(화)
*주 2회, 주 3회, 주 4-5회 중 선택 가능

2024 리딩엠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초등 : 7월 24일(수) ~ 8월 6일(화)
중등 : 7월 24일(수) ~ 8월 13일(화)

구분	과목명	대상	개강일	반구성	수업시간 / 횟수	교육비	교재 / 도서 / 준비
초등	책글 첫걸음	초1, 초2 학년별 각각 개설	7월 24일(수) 7월 25일(목)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4회	30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갈래별 글쓰기 1	초3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4회	30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갈래별 글쓰기 2	초4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4회	30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초등 과학 탐구보고서	초4~초6 통합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4회	30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초등 자기소개서	초4~초6 통합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4회	30만원	매수업 워크시트지 배부
	초등 한국사 (전반부/후반부)	초4~초6 전/후 각각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3시 3시간*4회	34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한국사편지1~5권> 개별구매
	초등 세계사	초4~초6 통합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3시 3시간*4회	34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세계사이야기1~2권> 개별구매
	초등 발표 토론심화	초1~2, 초3~4, 초5~6 통합 학년별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4회	30만원	매수업 워크시트지 배부
	초등 전집 읽어내기 (2주*회당 2시간)	초1~초6 통합 개설		7월 24일(수)	월~금	10시~12시 주3회, 4~5회	주3회 24만 주4~5회 30만
중등	중등 한국사	중1~중3 통합 개설	7월 24일(수) 7월 25일(목)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6회	38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개별구매 <청소년을 위한 한국근현대사> 개별구매
	중등 세계사	중1~중3 통합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6회	38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사양편)> 개별구매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동양편)> 개별구매
	중등 과학 탐구보고서	중1~중3 통합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5회	34만원	리딩엠 워크북 구매 (1만원)
	중등 자기소개서	중1~중3 통합 개설		월수반 화목반	10시~12시 30분 2.5시간*5회	34만원	매수업 워크시트지 배부
	전집 읽어내기 (3주* 회당 2시간 30분)	중1~중3 통합 개설		7월 24일(수)	월~금	10시~12시 30분 주 2회, 3회, 4~5회	주2회 28만 주3회 38만 주4~5회 46만

역삼직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52길 14 도곡프라자 2층 213호 전화상담 02.501.0603 / 010.9676.1152

전 집 읽어내기



다양한 전집도서를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리딩엠 특별 프로그램
 <전집읽어내기>는 20권~60권 내외의 전집을 단계별 커리큘럼에 맞춰 읽어나가는 리딩엠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틈새시간을 활용한 독서습관을 잡을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전집읽어내기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리딩엠 전집 읽어내기 독서활동지 9

전집명	지언어	이남영
책 제목	이름의 병을 치료한왕의 나라	2115

핵심서 작성해보기 해당분야 책을 읽은 후 바꾸고 싶었던 내용을 선택해보고, 이거기를 바꾸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후 바꾸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왕이 너무 물을 싫어해서 부스럼이 낳다는 내용 말고 왕이 너무물을 싫어해서 목욕을 안 하자 어느날 오물이 너무 너무 배고파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등에 붉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

◆ 자신만의 이야기로 내용을 바꾸어 보세요. * 원작 내그를 변에 집원 왕의 이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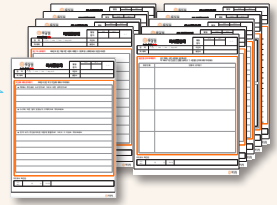
왕이 샤워를 9999번 동안 안하자 그는 너무 너무 배가 고팠다.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그의 신하들은 물에 들어서 마신다고 왕에게 말했지만 왕은 1주일 동안 두근거림을 참을 수 없어 마신다. 같다. 물이 싫어서 9999번 동안 물을 안 마셨지만 물 한 모금 하기에 천둥소리가 사라졌다.

리딩엠 | 송파 파크리오 직영센터

1 선택한 전집을 읽고, 다양한 주제의 활동지를 기록합니다.
 전집읽어내기 독서활동지는 열 가지 기본 활동지를 바탕으로, 지도교사가 전집 내용을 맞춤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인공에 대해 생각해보기
 여러분이 읽은 책의 주인공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요?
-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도 적어주세요.



2 지도교사가 1:1 첨삭 및 피드백하며 독서활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교열·교정, 내용 이해 과정을 돕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월말 상담 문자를 통해 독후활동 결과, 개선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진행 현황> 도서 권수 : 45/60권 / 진행한 독후감 : 4장

민찬이는 매주 6~7권의 전집을 읽은 후 4장의 독후감을 작성하며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찬이는 주로 만화그리기, 마인드맵에 집중하여 독서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인드맵과 만화그리기도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민찬이의 글 쓰기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전통 과학을 설명하는 설명문 중심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찬이가 작성한 다양한 독서록은 책상 후 차주에 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엠 역사센터 02-501-0603 / 010-9676-1152

리딩엠 여름방학 특강 전집읽어내기

초등반(초1~6)

- 1. 기 간: 7/24(수)부터 8/6(화)까지, 총 2주!
- 2. 요 일: 월요일~금요일
- 3. 횟 수: 주3회, 4~5회 중 선택 가능!
- 4. 시 간: 오전 10:00 ~ 12:00, 2시간!

중등반(중1~3)

- 1. 기 간: 7/24(수)부터 8/13(화)까지, 총 3주!
- 2. 요 일: 월요일~금요일
- 3. 횟 수: 주2회, 3회, 4~5회 중 선택 가능!
- 4. 시 간: 오전 10:00 ~ 12:30, 2시간 반!

“선택한 전집을 모두 완독해보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1권 완독할 때마다, <독서활동지>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목록 전집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주세요!

전집 읽어내기 도서안내

학년	여름방학 특강 전집
초1~2	생활 속 사회탐구(그레이트박스)
	생활 속 원리과학(그레이트박스)
	좋은책 어린이 저학년 문고(좋은책 어린이)
초3~4	초등논술 세계명작(킨더랜드)
	으랏차차 이야기 세계사(그레이트박스)
	초등융합사회과학 토론왕(웅치)
초5~6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가나출판사)
	네버랜드 클래식(시공주니어)
	사이언싱 오디세이(휘슬러)
중1~3	필독도서 한국창작문학 한국대표문학(한국세익스피어)
	역사 공화국 세계사 법정(자음과 모음)
	적성과 진로를 짚어주는 직업교과서(주니어 김영사)



책 읽기 와 글 쓰기

리딩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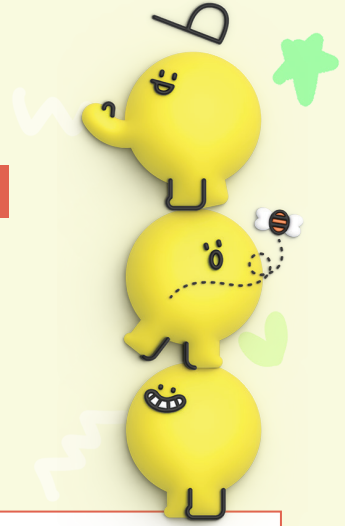
초등 저학년 독서와 글쓰기, 리딩엠

책과 친해지고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간다!

연필을 꼭 잡고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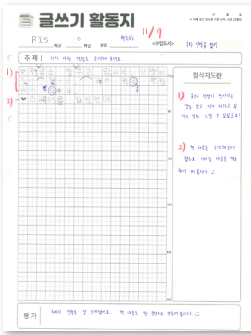
리딩엠에서 우리 아이의 맞춤법과 어휘력을 키우고 문장을 쓰고, 문단을 완성해 보세요.
사고력을 쑥쑥 키우는 독서와 글쓰기로 남다른 성장을 보여줍니다.

어휘	맞춤법	문장쓰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휘사전적의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올바른맞춤법학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육하원칙에맞게쓰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대말,비슷한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휘의표기와소리의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묘사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성어,의태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휘의기본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장의의미,아어진문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인과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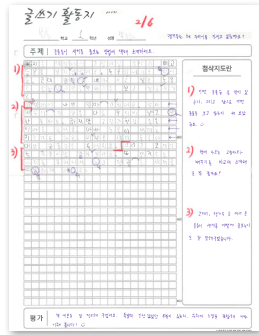


살펴보기 초등 저학년 수업 성과지표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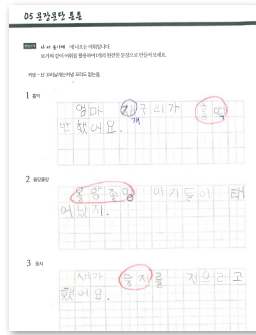
<리딩엠 도곡 직영센터 학생의 수업 결과물-초등 1학년 학생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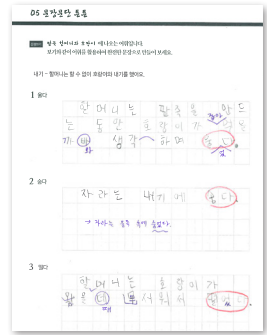
2023.11 글쓰기 원고지



2024.02 글쓰기 원고지



2023.11 리딩엠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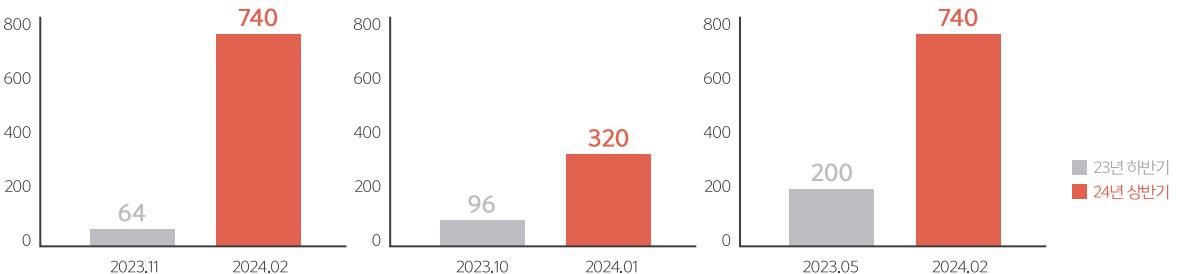


2024.01 리딩엠 워크북

2023년 11월에는 한문단으로 작성했지만 2024년 2월에는 세 문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소주제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힘이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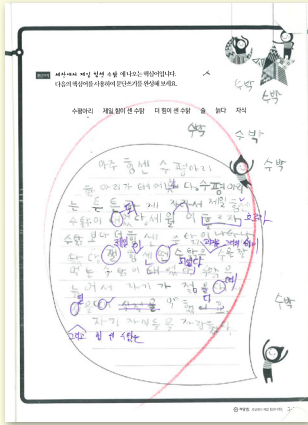
2023년 11월에는 <문장쓰기>를 무척 짧게 서술하였으나 2024년 2월에는 <문장쓰기>를 풍성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리딩엠 도곡 직영센터 저학년 학생들의 글자수 성과지표>



리딩엠 도곡 직영센터에서 실제 지도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좌측부터 초등 1학년, 초등1학년, 초등2학년 학생)

사례 1 '줄거리 쓰기 연습 내용 및 목표' 수업



<리딩업 도곡 직영센터 학생의 워크북 수업 결과물-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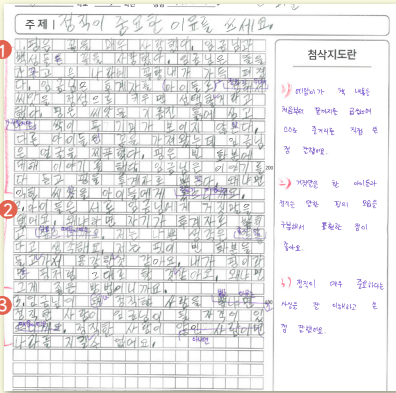
아주 힘센 수평아리 한마리가 태어났다. 수평아리는 튼튼하게 자라서 제일 힘센 수탉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서 수탉보다 더 힘센 수탉이 나타났다. 제일 힘센 수탉은 술을 잘 먹는 수탉이 되었다. 수탉은 늙어서 자기가 젊을 때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를 그리워하며 술을 마셨다. 자기 자식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힘센 수탉은



지도교사의 KeyPoint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수탉>을 읽고 줄거리를 간추린 내용입니다. 도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주인공 수탉의 생애, 겪은 일에 관해 차근차근 서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 수탉의 탄생과 성장, 더 힘이 센 수탉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 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탉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술을 마셨다는 대목을, 술을 잘 먹는 수탉이 되었다고 표현한 어린이다운 분석이 웃음을 줍니다.

사례 2 '책 내용에 관한 생각 쓰기 연습 내용 및 목표' 수업 활동



<리딩업 도곡 직영센터 학생의 글쓰기 원고지 결과물-초2>

<점삭지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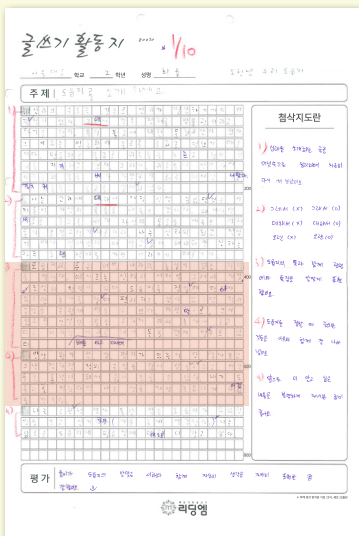
- 1) 예라미가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곱씹으며 스스로 줄거리를 직접 쓴 점 잘했어요.
- 2) 거짓말을 한 아이들과 정직을 말한 핑의 모습을 구분해서 표현한 점이 좋아요.
- 3) 정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쓴 점 잘했어요.

지도교사의 KeyPoint

<빈 화분>을 읽고 구성원들, 교사와 함께 활동지 각 문항을 통해 생각을 발현하고 정리한 뒤 교사가 제시한 주제와 개요에 따라 작성한 원고지 글입니다. 해당 도서는 임금님의 해안과 주인공 핑의 행동을 통해 정직의 가치를 전하는 도서입니다. 학생은 해당 도서를 읽은 뒤 핑의 용기, 임금님이 정직한 어린이를 후계자로 뽑기를 희망한 이유에 관해 잘 정리해 서술하였습니다. 핑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 점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사례 3 '조금 어려운 도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한 문장'



<리딩업 도곡 직영센터 학생의 글쓰기 원고지 결과물-초3>

“ 도읍지의 뜻은 어떤 나라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예시로는 신라의 서라벌, 고려의 개경, 조선의 한양이 있다. 도읍지를 정할 때 평야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편리하고, 산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손쉽게 막을 수 있다. (중략...) 만약 완이 산, 강, 평지가 있는데 안 알아보고 그냥 정하면 적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백성들은 흉년으로 굶어 죽을 수 있다. 내가 도읍지를 정한다면 나는 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지도교사의 KeyPoint

리딩업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도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3학년부터는 월별 테마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도서들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3학년이 되기 전, 예비초등 3학년 1월에는 역사 관련 도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중 <오천년 우리 도읍지>는 난도가 높아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도서입니다. 학생은 해당 도서를 읽고 구성원들, 교사와 함께 활동지 각 문항을 통해 생각을 발현하고 정리한 뒤 교사가 제시한 주제와 개요에 따라 원고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차돈의 순교에 관해 제시한 뒤 이에 관한 생각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 내용을 참고해 각 시대별 도읍지 및 도읍지의 역할 등도 차근차근 제시하였습니다.



리딩엠 2024 커리큘럼

07월

08월

09월

	제목	지은이	출판사	제목	지은이	출판사	제목	지은이	출판사
초0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고래이야기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시공주니어	심심해서 그랬어	윤구병	보리
	어린 음악가 폭스트롯	헬메 하이네	달리	나를 찾아봐	유근택	세용출판	고양이	현덕	길벗어린이
	오늘밤 내 동생이 오나요?	캐서린 윌터스	웅진주니어	유쾌한 할머니 다정한 할아버지	마우고자타 스펀드로브스카	풀빛	달구지를 끌고	도널드 홀	비룡소
초1	글자가 사라진다면	윤아혜	뜨인돌어린이	나는 나의 주인	채인선	토트북	척척 손아저씨 이야기	파티마 델라	풀빛
	손님	윤재인	느림보	내 얼룩무늬 못 봤니?	선안나	미세기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하섭	길벗어린이
	바늘 부부, 모험을 떠나다	도버시 에츠크	시공주니어	까만 나라 노란 추장	강우홍	웅진주니어	버리데기	박운규	시공주니어
초2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비룡소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권운덕	창비	술이의 추석이야기	이억배	길벗어린이
	뚜이, 뚜우	찰리 팔리	바독이하우스	물라쟁이 엄마	이태준	우리교육	우렁이 각시	엄혜숙	시공주니어
	충동 완료! 쌍둥이 탐정	서지원	좋은책어린이	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요?	전호태	다섯수레	화요일의 두꺼비	라셀 에릭슨	사계절
초3	내 생애 최고의 캠핑	수지 모건스턴	크레용하우스	아름다운 가치 사전 1	채인선	한울림어린이	겨자씨의 꿈	조성자	현암사
	가방 속 책 한 권	버지니아 리드 에스코발	도토리숲	거꾸로 나라 임금님	이준연	삼성당	우리 집에 온 마고 할미	유은실	푸른숲주니어
	깁떡이와 올살	김준옥	칭어림미디어	선생님 몰래	조성자	좋은책어린이	개구쟁이 노마와 현덕 동화나라	현덕	웅진주니어
초4	역사의 나들목 여기는 항구	조성은	책과함께어린이	마법의 빨간 린스틱	공지희	비룡소	충을 거꾸로 쓴 사자 라프카디오	셀 실바스타인	시공주니어
	똥똥 학교 황금 똥 누는 날	김현태	개업나무	그림 도둑 준모	오승희	낮은산	셋! 신데렐라는 시계를 못 본대	고지현	동아시아인스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청동달곰	문학동네	검정 연필 선생님	김리리	창비	제트가만큼 빠른 개 길들이기	제레미 스트롱	웅진주니어
초5	애벌레가 애벌레를 먹어요	이상권	웅진주니어	영동이 소피의 못말리는 패션	수지 모건스턴	비룡소	위당클럽 다이어리	박현정	파란정원
	시장에 간 홍길동 경제의 역사를 배우다	이명애	파란자전거	생각을 뒤집는 논리 세상	양승완	한솔수북	아기 도깨비와 오토제국	이현주	웅진주니어
	좋아? 나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안	몽치	광고의 비밀	김현주	미래아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다림
초6	열 살에 배운 법 백 살 간다	이정화	가고	어린이를 위한 정오란 무엇인가	안미란	주니어김영사	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새퍼	올파소
	강남 사장님	이지음	비룡소	민주의 슬기로운 정치생활	박신식	삼성당	춘향전	정지아	창비
	살뭇의 거미줄	엘렌 브룩스 화이트	시공주니어	한국사 편지 5 (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 어린이
초7	한국사 편지 4 (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5 (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무덤 속의 그림	문영숙	문학동네 어린이
	한국사 편지 4 (후반부)	박은봉	책과함께어린이	코끼리 사쿠라	김황	창비	곰의 아이들	류화선	문학동네 어린이
	어린이 동양철학 : 공자 가라사대	어린이철학 교육연구소	해냄	아빠, 법이 뭐예요?	우리누리	창비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푸른책들
초8	어린이 외교관, 중국에 가다	김용수	뜨인돌어린이	세계사 이야기 2(전반부)	초등역사 교사모임	늘푸른아이들	트로이 전쟁(비룡소 클래식8)	패드라익 콜럼	비룡소
	세계사 이야기 1(전반부)	초등역사 교사모임	늘푸른아이들	세계사 이야기 2(후반부)	초등역사 교사모임	늘푸른아이들	돈키호테	미셸 데 세르반테스	푸른숲주니어
	세계사 이야기 1(후반부)	초등역사 교사모임	늘푸른아이들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박동석	봄별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효리원
초9	미국사편지	안효상	책과함께어린이	이희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슬람 제대로 알기	이희수	푸른동대	센도사 베레미즈의 모험	말버타한	경문사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라	좌백	마리북스	사씨남정기	김만중	영림카디널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아름드리 미디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웅진지식하우스	박문수전	이동렬	영림카디널	사막의 꽃	와리스 디리	섬앤섬
중1	돼지가 한마리도 죽지 않던 날	로버트 뉴턴 팩 카롤린 필립스	푸른숲주니어	홍길동전	허균	영림카디널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 1	우르줄라 하우케	해나무
	커피 우유와 소보로 빵	리딩엠	리딩엠	어떤 솔거의 죽음	조정래	다림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익점: 생각하는 인간 편 (전반부)	이시한	흐름출판
	기말시험 대비	리딩엠	리딩엠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문학과지성사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익점: 생각하는 인간 편 (후반부)	이시한	흐름출판
중2	청소년 정치 수업	한대희 외	양철북	비오는 날	손창섭	문학과지성사	청소년을 위한 고전혁명 (전반부)	이지성, 황광우	생각학교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라이너 에를링어	비룡소	원미동사람들	양구자	쓰다	청소년을 위한 고전혁명 (후반부)	이지성, 황광우	생각학교
	기말시험 대비	리딩엠	리딩엠	삼국사기	김부식	타임기획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엘료	문학동네
중3	기말시험 대비	리딩엠	리딩엠	남한산성	김훈	학교재	구운몽	김만중	민음사
	장자, 사기를 당하다	김종욱	탐	손님	황석영	창비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플라톤, 영화관에 가다	조광제	탐	허수아비춤	조정래	해냄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 힘

- 교육특구가 인정하고 언론사가 주목하는 리딩엠 -



2024 대한민국 교육대상



ChosunMedia
조선일보, (주)조선교육문화미디어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권위

9년 연속

KOREA EduAward 2023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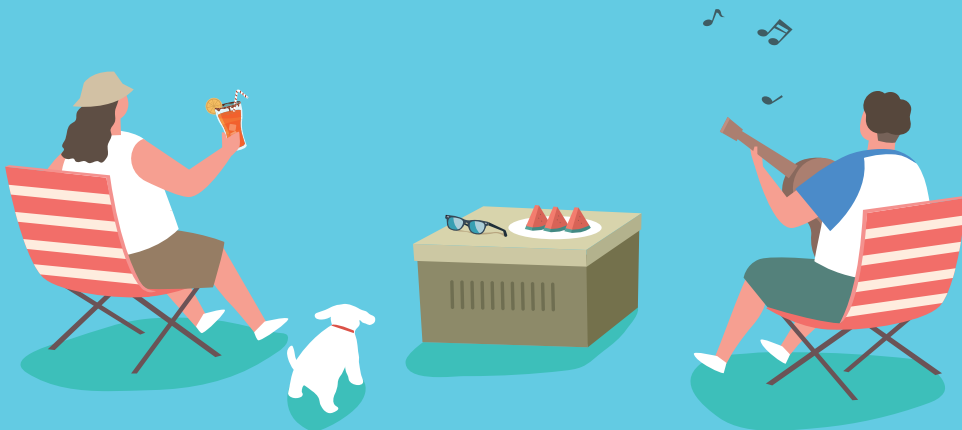
(주)리딩엠은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 등 각 유수의 언론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과 미래창조 경영 우수기업 대상 등을 각각 수상하며 교육특구와 언론사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사귀는 벋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스마일즈





2024 여름호
독서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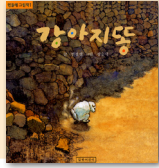
Magazine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업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업도서에 대한 독서 후 활동수업을 거친 후 쓴 것으로, 번갈아가며 매겨진에 실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쓰게 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배서운 (도성초1)



강아지 똥은 참새를 만났는데, 참새가 나쁜 이야기를 해서 속상했어요. 근데 흙똥이 와서 강아지 똥에게 울지 말라고 달래주었어요. 그 뒤로 민들레 꽃을 만났어요.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위해 거름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민들레 꽃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었어요.

나도 엄마를 도와줄 때 행복하고 좋아요.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 주었는데, 엄마가 좋아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엄마를 잘 도와줄 거예요.



장영실의 업적과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쓰세요.

김태운 (도성초2)



장영실은 낮은 신분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호미가 부러 졌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이 호미를 고쳤고 그를 본 사람이 무기들을 고 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날 무기들은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의 소문은 한양까지 퍼져서 그는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영 실은 명나라에서 책을 구해서 공부했고 세종대왕님이 만들라는 걸 완 성시켰습니다.

혼천의는 해와 달,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재는 기구입니다. 옥루는 시간이 되면 인형들이 북과 종, 장을 치며 알려주는 물시계입니 다. 간익는 혼천의를 간단하게 해놓은 기구로 행성들의 움직임과 위치 를 재는 기구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발명품은 매직 월드입니다. 매직 월드는 그것을 치면 원하는 것을 저절로 사주는 기구입니다. 색깔은 무지개입니다. 매직 월 드를 또 치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직 월드는 아무것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놔두면 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바 꾸면 말한 것처럼 무지개색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갈수록 더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면서 싸집니다. 반면 너무 과학이 발전하면 오존층 쉐드가 조금 깨져서 너무 더울 수도 있고 공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장영실의 삶과 업적을 쓰세요.

김윤서 (도성초2)



어렸을 때부터 별자리를 보던 장영실은 조선시대 과학자이고 천문학 자이자 금속기술자이며 발명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과학기구 와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손재주가 뛰어났 고 세종대왕의 종이었던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 기술자로 일하게 할 정 도였다. 비록 신분이 낮아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하고 싶은 것은 꼭 이 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도 대단했다. 그를 노비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 기고 무시했지만 장영실은 열심히 일했고 결국 기술자들이 많은 궁궐에 서도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고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무척 아꼈다. 세종 대왕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과학과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했고 그런 세종에게 장영실은 꼭 필요한 신하였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 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고 명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벼슬까지 내렸고 세종대왕의 든든한 지원 아래서 장영실 은 집현전 학자들과 힘을 모아 천문 관측기구들을 만들었다. 장영실의 발명품들 덕분에 백성들은 농사짓기가 편해지고 조선시대 과학은 눈부 시게 발전했습니다.



캠핑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박지윤 (역삼초2)



핀두스와 할아버지가 등산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닭들 때문에 등산 을 가지 못했어요. 닭들은 어쩌나 장난을 치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결국 크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에서 텐트를 치고 낚 시를 했어요. 그러나 핀두스는 침낭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까 낚시 를 할 때 창꼬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핀두스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캠핑 은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캠핑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캠핑장 사장님과 친하기 때 문이예요. 그리고 나는 아빠를 도우며 텐트를 치지요. 그러나 나는 텐트 를 다 치면 뱅뱅이로 가서 친구와 함께 놀아요. 나는 밤이 되면 캠핑파 이어를 해요. 캠핑파이어는 불을 밝히며 장작을 태우는 놀이예요. 캠핑 파이어를 하면서 마시멜로를 굽거나 핫도그, 쪄뜨기 같은 음식을 먹어 요. 덕분에 내가 갔던 캠핑은 아주 특별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논 것 도 아주 좋았어요.

등장인물들을 평가해 보세요.

정서운 (위례한빛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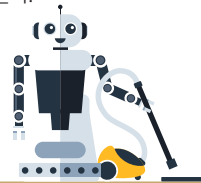
꼬마마녀는 개구쟁이예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녀요. 그래도 마음씨는 착해요. 아브라삭스는 꼬마마녀의 친구로 착한 까마귀입니다. 아브라삭스는 다른 까마귀와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왕마녀는 커다란 포크 같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룬풍켈 고모마녀는 날씨마녀예요. 뚱뚱한 몸매에 넓은 코예요. 저는 사고도 많이 쳐요.

첫 번째 꼬마마녀가 도와준 사람은 할머니들인데 나뭇가지를 거울 떨어감으로 쓰려고 하는데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래서 꼬마마녀는 조용히 바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던 아주머니들이 몇 주는 걱정없다며 감사했어요. 아브라삭스는 꼬마마녀를 칭찬했어요. 두 번째로 도와준 사람은 종이꽃을 파는 소녀가 가난해서 꼬마마녀가 종이꽃이 향기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문제 없이 살았답니다. 셋째는 말을 때리는 나뭇마차꾼인데 말을 때리면 자기가 맞게 해서 마차꾼은 다시는 말을 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밤장수를 도와주었어요. 밤장수는 감기에 걸렸어요. 꼬마마녀는 밤장수에게 두 가지 마법을 걸었어요. 첫 번째 마법은 추위에 떨지 않아서 잘 구운 밤을 팔 수 있게, 두 번째는 뜨거운 군밤을 뜨겁지 않게 느끼는 마법을 했어요.

제가 마녀가 되면 먼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들과 놀고 싶어요. 그리고 동물과 말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싶어요. 정글북처럼요. 저는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울 거예요. 동물과 말하는 요술로도 말이 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마녀도 소환해서 같이 운동, 책 읽기 그리고 영화, 그리고 날아다니는 빗자루 대신 내 전용 비행기를 소환해서 빗자루 대신 타고 다니며 다른 마녀에게는 자랑할 거예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웬지 운이 좋으면 엄청 잘 살았을 것 같다. 운이 좋으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밥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물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막 툭툭 치며 다녔을 것 같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책에서도 할아버지가 아픈데 물고기 같은 재료로 치료를 하고 약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리고 밖에 잘 못 나가고 아프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웬지 박물관이나 유적에 가면 처음엔 설레고 기쁘다. 그리고 박물관에 갔다 오면 다양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궁금증도 많아지고 생활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상상력도 많아질 것 같다. 아직 박물관을 기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다녀오면 색다른 궁금증도 생기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될 것 같다.



내가 만들고 싶은 발명품에 대해 쓰세요.

유서우 (도성초3)



개미 살려 신발, 뒤죽박죽 시상자, 큰 소리 거름기가 있다. 뒤죽박죽 시상자는 이상한 시를 만드는 것이고, 개미 살려 신발은 개미를 밟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만들었고 큰 소리 거름기는 큰 소리는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말라고 만든 것 같다.

오제니와 말랭카의 관계는 처음에는 경쟁심이 조금 있었지만 '다르게 생각하기 대회'에서 2등을 하고 나서 친해졌다. 말랭카가 얼굴을 일그러뜨릴 때마다 오제니는 속상했다. 말랭카는 오제니가 자신보다 발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오제니는 공작소가 있는 말랭카가 부러웠고 말랭카는 오제니의 창의력이 부러웠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기 대회'에서 2등을 하고 나서 친해지기 시작했다. 우정은 마지막에 단단해졌다.

내가 발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생각하고 연필 잡고 쓰는 게 별로다. 하지만 이 로봇이 있으면 그냥 답만 쓰면 된다. 맘이 아픈 엄마 또는 부모님들도 이 로봇을 쓰면 간단하다. 그리고 노인들도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일 때 대신 잡아서 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모두에게 편리한 로봇을 만들고 싶다. 학생들, 어른들, 노인들까지 정말 남녀노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신 90대 노인들은 그 로봇이 심부름꾼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이 로봇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이 로봇을 만들면 나쁜 짓은 그냥 매일 할 수가 없고 속제 알려주는 기능은 엄마, 이빠에게 혼날 수가 있고 혹시나 심부름을 잘못해서 혼날 수도 있고 부침개를 부치다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만든다면 그러지 않게 만들 것이다.

고인들에 관해 설명해보세요.

도희정 (도성초3)



고인돌은 보통 타임캡슐이라고도 많이 불린다. 고인돌을 만드는 법은 먼저 터를 잡고 기둥을 세운 뒤 꾀돌을 고이고 흙으로 꾀돌과 기둥을 덮는다. 그 후 덮개를 올리고 덮개돌을 세우면 완성이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고인돌은 3가지 모양이 있다. 첫 번째로 탁자 모양인데 주로 북쪽 지역에 많아서 북방식이라고도 한다. 둘째로 바둑판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덮개 식이 있다. 땅 밑에 무덤방을 만들고 꾀돌 없이 큰 덮개돌을 올리는 것이다.

펠릭스와 디디의 우정에 대해 쓰세요.

김윤우 (도성초4)



펠릭스와 디디는 여러 마리의 개들을 끌고 다니기, 의자도 갖다 주기, 수영도 하기, 풀도 뽑기 등등 이런 일들을 했다. 둘 다 사이좋게 친구들과 과 친해졌다.

나는 초보 스케이터여서 짜증났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스케이트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스케이트도 타고 바로 학교에 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디디와 펠릭스는 숲으로 소풍을 떠났다. 디디와 펠릭스는 산 위로 올라가다가 울타리에 난 구멍에 몸이 끼었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우정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남들이 둘만 무시했다고 다시 맹세를 했다. 펠릭스가 불거리에 걸려 머칠을 앓은

후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디디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방법이 끝난 후 프란츠가 전화 왔다.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가 누구한테 잡혀갔으면 찾으러 나서고 어떤 친구가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친구가 다쳤을 때 보건실에 같이 가져거나 치료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의 의미는 친구와 친해지고 다른 반이 되었을 때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화 온 프란츠도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명자의 입장이 되어 글을 적어보세요.

강효은 (도성초4)



이 책은 명자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그 아이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반장인 도영이는 명자가 잘 뛰는 것을 보고 육상 선수로 추천해주었어요. 명자는 자기는 도저히 못 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학교 끝나고 1학년 3반 앞을 지나가는데 무언가가 이상했어요. 그곳에는 책들이 잔뜩 꽂혀 있고 다른 나이의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궁금해진 명자는 매년 지나갈 때마다 그 교실을 힐끗 보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교실 선생님이 명자를 눈치채고 들어오라고 초대해주셨고 명자는 책의 세계로 빠져들면서 밤늦게 집에 돌아가게 되지요. 밤에 돌아가게 되자 선생님은 명자에게 도서관의 열쇠를 맡기게 되었는데 명자는 육상 연습을 해야 해서 결국 열쇠를 반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명자는 자신이 잘하는 육상보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었고 결국 책을 읽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명자가 고민한 것은 자신 있는 일을 할까, 아니면 하고 싶은 할까? 예요. 저 같으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기 싫는데 잘하는 것을 하면 결국 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은 절대 질리지 않으니깐요.

저는 저의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것을 잘 하겠다는 욕심도 있어서 계속 연습을 해서 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질려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만의 1년 독서계획을 세워 보세요.

임재인 (도성초4)



나는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목표로 하겠다. 나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겠다. 그리고 나는 종이에 200개의 원을 그려서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동그라미를 색칠하는 방식으로 몇 권을 읽었는지 볼 거다. 그리고 독서기록장을 쓸 거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내용도 꼼꼼히 쓸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미리 읽은 책을 읽어야 하는데 안 읽어도 된다.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바로 똑똑해진다고 어른들이 말하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책을 더 읽고 싶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찾아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작가의 말이 무엇인지 알려고 많은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상상력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된다면 책이 재미있어져서 더 읽고 싶어지게 된다.

나의 평소 독서 실력은 하루에 책 한 권 읽는 정도이다. 그리고 그것의 좋은 점은 하루에 한 권이라도 읽어서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점은 그러면 내가 오직 하루에 한 권만 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내가 책읽는 습관을 더 못 늘린다는 것이다.



명자의 입장이 되어 글을 적어보세요.

우주연 (도성초4)



책의 중심 내용은 명자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고르는 이야기다. 책의 주인공인 명자는 폐결핵 때문에 언젠간 달리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도서관 열쇠를 받게 되고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좋아하는 책 읽기를 하기로 한다. 책의 등장인물은 영지, 선생님, 명자의 엄마 등이 있는데 동생인 영지는 명자를 많이 놀리는 말쑥꾸러기이다. 명자는 영지가 놀릴 때를 가장 싫어한다. 엄마는 명자가 아픈 것이 걱정되어서 육상을 그만두라고 하시고, 선생님은 책을 좋아하는 명자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도서관의 열쇠를 맡기신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남이 아닌 내가 스스로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자가 고민한 이유는 육상을 그만두면 체육 선생님이 자신을 혼낼까 걱정되기도 하고 잘하는 일을 포기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육상이나 도서관 활동을 같이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명자처럼 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잘 알진 못하지만, 내가 명자라면 일단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후 나의 마음이 더 가는 쪽으로 선택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회도 남지 않을 것 같다.

과학과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 적어 보세요.

최서아 (도성초4)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전통과학은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과학자인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중의 하나입니다. 원래 이름은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는 복잡한 선과 글자로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자시는 쥐를 뜻하고 오후 1시부터 오전 1시까지를 뜻합니다. 그 외에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축시가 있습니다. 앙부일구, 즉 해시계는 해에 그림자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자율주행 비행기를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가까운 거라면 괜찮은데 먼 거리를 가려면 시간은 물론이고 비행기 조종하는 분께 정말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비행기를 만들면 조종사 분들께 안 미안하고 난기류를 만들 확률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장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일단 장점은 먼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삶에 편리함을 줄 것 같다는 것이고 단점은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고 또 과학발달로 인해 생태계의 오염도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쓰세요.

심은서 (도성초4)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과학유산은 바로 혼천의입니다. 제가 혼천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혼천의가 발명되기 전에는 명나라가 만든 달력과 별자리가 표준이었는데 혼천의가 발명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날짜, 시간, 그리고 별자리를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혼천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혼천의는 왕을 위한 게 아닌 바로 백성을 위한 발명품이란 겁니다. 이전에는 명나라 달력과 별자리를 사용하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실제 날과 맞지 않아 어이했을 텐데 세종대왕은 아마 이것을 알고 장영실을 시켜 명나라 천문 관측 기구를 연구해 혼천의를 만든 후 백성들에게 널리 배포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과 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책에는 과학 지식, 농업 등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잔뜩 담겨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다스릴 때에는 영화가 있었지만 연산군이 다스릴 때에는 혼란이 있었듯이 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성군은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책을 만든 사람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책과 책을 만든 사람의 중요성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은 현대에는 보통 컴퓨터, AI 등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학 기술이 발전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쓰세요.

최서준 (도성초4)



책과 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통과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그 책을 만든 사람도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흥미로운 과학유산은 온돌입니다. 이유는 온돌이 아궁이에 불을 때면 방이 따뜻해지는데 한여름에 불을 때야 할 때나 아니면 불을 때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게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날로 발전하지만 너무 이렇게 자원을 막 쓰면서 과학 발전에 치중하다 보면 과부하가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이유가 자동차 가스,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발전하려다가 지구가 뜨거워져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발전해야 할 것 같다.

생태계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최현서 (도성초4)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크라카타우섬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크라카타우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땅이 죽었는데 천이 덕분에 역새풀이 자라고 자라면서 작은 식물, 큰 식물, 나무까지 되어서 다시 멋진 풍경을 되찾았다. 그리고 사자의 사체가 사라지는 이야기도 신기했다. 사체가 사라진 이유는 조그마한 동물, 큰 동물, 곤충, 그리고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끼가 풀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똥을 싸고 다시 그 똥을 먹는다는 게 신기했다. 알고 보니 그 똥을 다시 먹는 이유가 더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는게 참 재미있었다.

생태계는 끝없이 되풀이면서 돌고 도는 살아있는 자연의 세계이고 먹이사슬은 동식물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종류의 동물이 멸종하면 생태계와 먹이사슬이 멈추고 모든 동물이 힘들게 살 것이다.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왜냐하면,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둘의 생활방식이 같으면 싸움이 나서 둘 중 한 종류는 멸종할 것이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생태계가 파괴되면 동물의 사체가 날리고 날려져 초원이나 숲이 전부 사체 밭이 될 것이다.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살게 놔두면 된다. 그리고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구에는 큰 생태계와 작은 생태계 중 숲의 생태계, 강 생태계, 연못의 생태계, 갯벌의 생태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생태계 중 몇 개라도 끊기면 지구라는 가장 큰 생태계도 멈출 수 있다. 만약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

과학과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 적어보세요.

배현아 (도성초4)



해시계는 장영실이 만들었는데 글을 몰라도 시각을 알 수 있는 기구이다. 양부일구에는 복잡한 선과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규칙을 알면 누구나 쉽게 시각을 알 수 있다. 시반 안에 그려진 가로 13줄, 세로 7줄은 절기와 시각을 나타낸다.

내가 만약에 과학자라면 나는 옷걸이를 만들 것이다. 그냥 옷걸이가 아니라 움직이는 옷걸이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짐바를 집에 돌아 오자마자 걸어 놓는 것이 너무나 귀찮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 옷걸이는 스스로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다. 이 옷걸이만 있으면 짐바를 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다시 생각해보도 정말 좋은 생각이다. 만약 그 옷걸이가 진짜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편리해질 것이다.

속담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세요.

김윤호 (도성초4)



사람은 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조상들도 처음엔 과학적인 원리를 잘 몰랐는데 오랜 세월 끝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의 전자 기기 같은 것이 없는데도 과학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낱씨는 자연 현상이라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중에 하나, 낱씨는 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느끼는 것이지만 자연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던 시기여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과학의 원리, 바로 낱씨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정해주는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 땀을 뻘뻘 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비도 안 오고 그러면 그냥 흉년이 들어서서 백성들이 한숨을 뱉는 것입니다.

바늘구멍에 황소 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과학적 원리가 있고 여러 상황에서 이 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도 단숨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베르누이라는 스페인 과학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베르누이가 과학적으로 작은 구멍에 액체나 기체가 더 구멍이 좁을수록 더 빨리 빠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 나가면 이로운 점은 우리 삶이 아주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할수록 더 편안해지고 편안해야 발명을 더 잘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발명을 자주 하다 보니 환경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환경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발명이고 뭐고 다 끝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리딩업의 생각



명자의 입장이 되어 글을 적어 보세요.

정수빈 (도성초4)



명자는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 선수로 뽑혔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어머니께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명자는 자신이 잘하는 달리기를 못하게 되어 불명증까지 걸린다. 그러던 중 도서관을 알게 되고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은 명자에게 도서관의 열쇠를 주신다. 그 이후로 명자는 달리기를 포기하고 도서관의 열쇠를 맡게 된다. 느낀 점은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슬펐다.

명자가 고민했던 이유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이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골라야 하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내가 명자라면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중에 나의 장래희망이 되고 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된다면 어른이 될 때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내가 명자처럼 고민했던 경험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태권도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어서 고민했던 일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자유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 좋아하는 일 안에도 배움과 깨달음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제인 구달은 침팬지를 보호하는 것이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통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었고 베토벤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곧 일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잘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

시집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희의 어머니는 그래서 초희가 책을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초희가 책을 읽는 것이 보이면 초희를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저는 초희의 어머니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가 초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초희는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글공부를 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의 중심이 남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남자들만 과거를 쳤고 여자들은 바느질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끔씩 초희 같은 여자애들이 탄생하면서 성 차별이 없어진 지금 즉 현재로 변화했습니다.

초희가 살았던 시대에는 남녀차별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심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일도 하고, 집안의 중심일 수도 있는 등 차별이 훨씬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학교(서당)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시험(과거)도 못 봤고, 일도 못 했고,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차별이 너무 심해서 여자들은 한자 같은 글씨를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는 밖에 나가는 일도 드물었지요. 그래서 초희가 살 때에는 엄청나게 불공평했어요. 여자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서 지식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 하루하루가 불공평했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건들을 설명해 보세요.

김재익 (도성초5)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난 전쟁이고 조선이 건국하고 딱 20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남아도는 힘을 나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에 무역하자고 했는데, 조선이 거절하여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1592년 4월 14일, 일본은 2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로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의 진격속도는 너무 빨라서 한양과 평양이 1달도 안 돼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복궁은 불타고 백성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몽골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고 스님들도 승병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바다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모두 승리했고 명나라 군대도 지원군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피해를 남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청나라와 명나라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이런 중립 외교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난을 일으켜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 후 명나라의 편을 들던 조선을 건방지게 생각한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저항하여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초희가 처해 있던 상황과 그때 느꼈을 감정들에 대해 쓰세요.

심소운 (도성초4)



초희와 초희의 어머니가 바랐던 일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초희가 원했던 일과는 글짓기, 글공부, 책 읽기였습니다. 초희는 남자들만 글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여자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든 음식을 만들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바느질을 하다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초희의 어머니가 원했던 초희의 일과는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초희의 어머니께서는 여자가 책을 읽으면서 글공부를 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지 좋은 집에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 설명하세요.

김지원 (도성초5)



병자호란은 1636년에 내 기억으론 춥고 추운 겨울에 벌어졌다. 높디 높은 폐하께서 청나라에 대적하시며 시작된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양 선비였는데 발에 동상이 너무 심하여 피난을 가지 못하였다. 청나라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단 6일 만에 한양을 포위해 버렸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다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남한산성에서 도망쳐 나온 신하가 말하기를 지금 성 안에서는 주화파와 척화파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갑자기 광해군 님이 다스리던 때가 그리워진다. 그분은 당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셨지, 그때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았는데. 하지만 발발 1년 후 인조가 강화를 맺기로 하자 전쟁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청나라와 조선은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이니 이렇게 속상할 수 있겠는가. 2년 뒤 나는 잠시 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도로 잠깐 휴양을 갔었다. 그 덕에 포로가 되지는 않았다. 들어보니 이 씨네는 다 잡혀갔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인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적지 않았다. 한때 내 왕이었던 분이 굴욕을 당했다니 인조가 아무리 싫어도 기분이 나쁘다. 그는 청나라 황제에게 삼배구고두례를 올렸다고 한다. 이렇게 굴욕을 당하다니! 1시간 후 잠시 옆집 허녀가 왔다. 이 씨네가 몸값을 내고 돌아왔다고 한다. 청나라는 욕심이 아주 많다. 제주에서 생각을 해본 이야기를 썼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의 피해가 막대했던 환란이었으나 인조가 당한 것을 보니 통쾌하다. 나라를 잃었으나 우리 왕이어도 배신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다음 왕은 그것을 알면 좋겠다. 이것이 내 병자호란의 기록의 끝이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설명하세요.

서혜인 (도성초5)



통일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으로 나뉘었는데 성골이 그중 가장 높고 그다음이 진골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두품 중에 6두품이 가장 높고 1두품이 가장 낮은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 2, 3두품은 평민과 똑같은 취급을 했다. 그래서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그리고 평민 이렇게 골품제가 나뉘었다. 자기의 신분에 따라 결혼하는 상대와 자기 집의 크기, 옷차림, 마구간에 넣을 수 있는 말의 수, 식기 도구 등 여러 가지를 정해 놓았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세워진 나라이다.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이 다수의 말갈인을 다스리는 나라였다. 고구려가 멸망하며 당나라군에게 잡혀간 고구려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나라와 전투를 벌였다.

그중 살아남은 말갈인들과 고구려인들을 대조영이 이끌고 와서 고구려의 옛땅인 동모산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진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진국은 점점 성장해서 고구려의 옛땅을 차례차례 손에 넣으면서 강성해져 갔다. 평화롭던 발해는 230년 동안 계속되었고 거란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

신라와 백제는 100년 넘게 나제동맹을 해온 사이였다. 신라는 2년 뒤 백제를 공격하여 그 동맹을 깨버리고 화가 난 백제의 성왕은 신라로 쳐들어갔지만 성왕은 죽고 말았다.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정복했다. 백제만 정복하고 고구려까지 정복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구려까지 정복해서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화랑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하였다.

백성들을 이롭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설명하세요.

이윤진 (도성초5)




내가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과학유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과학유산 중 첫째는 석빙고이다. 왜냐하면 냉장고나 냉동실처럼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지만 안 녹는 게 신기하다. 석빙고는 만들 때 땅을 깊게 파서 단단한 화강암으로 벽을 쌓아 바깥의 얼을 막고 천장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더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게 했다. 그리고 물이 생기면 얼음이 더 빨리 녹기 때문에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고 배수로로 설치하여 녹은 물을 빨리 빠져 나가게 했다. 두 번째 과학유산은 온돌이다. 왜냐하면 온돌을 사용하면 전기세도 안 나가고 요리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온돌과 석빙고가 가장 흥미로운 과학 유산이었다.

백성들을 이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책과 사람이다. 왜냐하면 책에는 상식이나 과학유산과 같은 유용한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책을 읽는 것도 사람, 만드는 자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이것의 이로움 점은 우리가 편리해지고 우리 삶이 풍족해졌다. 이것의 부작용은 환경오염과 핵무기가 생긴 것이고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한 미래의 모습은 지금보다 안 좋아져서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고 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서 훨씬 더 풍족해질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가지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지구를 위해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조선 후기의 사건들을 설명해 보세요.

정아림 (도성초5)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고 일본의 왕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남은 힘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 한 달도 안 되어 한양이 함락되고 두 달 만에 평양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경복궁도 불길에 타버렸다.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서 자기 마을을 지켰고 성리학자나 승려들 역시 병사가 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제압하였고, 학익진 같은 전법을 사용하여 크게 승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계속 밀리던 육지에서도 행주 대첩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고 명나라도 도움을 주러 온다. 그렇게 일본군은 밀리게 되자 조선을 빼놓고 명나라와 강화 협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패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그 전쟁의 이름은 정유재란이다. 조선은 이순신 장군님의 활약으로 다시 쳐들어온 일본군을 물리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전쟁은 끝나게 된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불타 없어졌으며 역사책들도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왕이 된 광해군은 새롭게 강자가 된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다간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중립 외교를 했지만, 그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되고 새롭게 왕이 된 인조는 청나라를 배척하려고 해서 미움을 사게 된다. 그래서 청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청나라의 침입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청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흥미롭다고 느낀 천체를 골라 설명하고 우주 환경에 대해 상상해 보세요.

윤지용(도성초5) 



태양계의 행성 중 흥미롭게 느낀 행성은 금성과 화성입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이렇게 뜨거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다른 행성들과 같이 일반 온도일 줄 알았는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성이 모두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행성이라고 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느낀 또 다른 행성은 화성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에 또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진짜 생물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실험이 실행됐으면 진짜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실험이 취소돼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 외 천체들 중 흥미롭게 느낀 것은 혜성과 명왕성입니다. 왜냐하면 혜성이 행성이 아니라 얼음조각이 뭉친 것이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고, 그리고 혜성 때문에 혜성보험, 혜성 방독면 등등 사람들이 혜성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천체는 명왕성입니다. 왜냐하면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고, 그리고 명왕성이 태양계 주변을 이상하게 돈다는 사실에서 명왕성은 태양계에 속하는 소행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외계문명은 전쟁에 쓰일 총은 레이저 총이 되고, 건물은 평균 200층이나 되고,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탄생하고, 망원경이 안경 모양으로 바뀌어 좀 더 무겁지 않고 편리해진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눈이 엄청 크고 검정색이고 흰자가 없고 키가 매우 크고 피부가 초록색이고 발은 오리발이다.



흥미로운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현진 (도성초5) 



‘명탐정, 인류 무형 유산을 찾아라!’라는 책에서는 할아버지 부채의 비밀이 담겨 있다. 샘은 이 부채의 주인을 찾고 싶어서 이름이 명탐정인 명탐정을 찾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또 부채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류 무형 유산을 보러 떠났다. 판소리,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처용무,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가곡, 영산재, 대목장,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매사냥 등등을 보러 간다. 그리고 줄타기 공연을 하는 곳에서 부채를 보았다. 그 부채는 할아버지의 부채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부채를 남사당 전수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 책에 나온 문화유산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문화유산은 강강술래다. 강강술래는 원래 보름달 밑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놀이인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왜적을 물리치려고 진도 앞바다에서 여인들한테 강강술래를 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왜적보다 군인의 수가 더 많아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강강술래는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사실이 많아서 나한테 가장 흥미로웠다.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을 후대에 잘 넘겨주는 방법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기억하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러 갈 수 없을 때에는 유튜브로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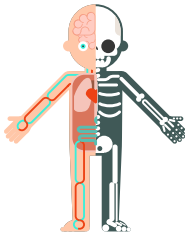
우리 몸을 설명해 보세요.

이나린 (도성초5)



저는 심장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매일 뛩니다. 지금도 아주 많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3분 이상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박자가 정확하지 않고 이상한 박자로 뛰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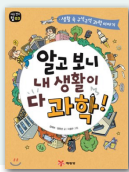
뼈는 살아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습니다. 뼈세 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도 운반해주고 영양분도 날라다 줍니다. 또한, 근육과 함께 우리 몸무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뼈는 강철보다 다섯 배나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몸의 근육은 징그럽게 생겼지만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예 먹지조차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감싸고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피부가 약해지면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며 충분히 자야 합니다.

일상 속 과학 이야기를 소개해보세요.

김민준 (도성초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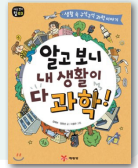
방귀는 음식을 먹을 때 같이 흡수한 공기를 내뿜는 생리현상입니다. 물론 거의 트림으로 나오지만 몇 안 되는 것들이 장으로 들어가서 방귀가 됩니다. 유제품, 육류, 생선 등을 먹을 시 방귀 냄새가 독해집니다. 이 이유는 우리 몸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단백질은 냄새를 유발하는 해로운 균들이 좋아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독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방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 냄새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과학 지식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낫고 저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는 다양한 과학 원리가 결합하여 있고 예를 들어 평범한 물건도 과학과 인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자연 친화적인 것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는 수소와 불을 잘 타게 하는 산소가 결합하면 그와 정반대인 물이 되는데, 이런 과학 지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산소가 여러 개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소 3개가 결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오존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과학의 신비함이며 우리가 연구해야 할 지식인 것 같습니다.

일상 속 과학 이야기를 소개해보세요.

손유정 (도성초6)



책의 내용 중에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병사들이 과혈병으로 쓰러져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졌다는 사실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그 막강한 러시아가 일본에 졌다는 게 놀라웠는데 그 원인이 병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를 잘 먹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채소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소만 먹어도 몸의 건강에 좋지 않으니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과학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지혜로워질 수 있으며 많은 것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과학을 알아두면 더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꿈이 과학자라면 어릴 때 조금이라도 과학 지식을 알아두면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과학 지식을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과학 지식 중에 빛보다 빨리 지구를 돌면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을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할 수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으니 우리가 보는 과학책에 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들은 대부분 다 맞았으므로 이 이야기도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아인슈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리력과 관찰력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

하태연 (도성초6)



나는 청맹과니의 손바닥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먼저 눈이 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누가 범인인지 찾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유 노인의 이야기에서 이광민은 유 노인의 사촌 동생과 결혼을 이미 했는데 만석꾼의 딸과 재혼하려고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는 모습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장 선비가 뛰어난 지혜로 이 사건을 해결해준다. 먼저 유 노인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손에 식초를 찍어서 한지에 찍도록 해 혈흔을 찾고 그 살인을 지시한 배후가 이광민임을 밝혀낸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장 선비는 다른 백성들을 돕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난다.

내가 암행어사라면 사람들이 지켜달라는 것을 잘 지켜주면서 나의 힘으로 머리를 잘 굴려서 사건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것 같다. 그리고 범인을 잡고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면 보람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항상 암행어사를 그만두고 싶을 것 같다. 목숨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뇌물의 유혹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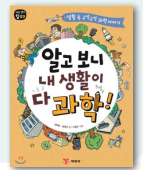
훌륭한 탐정이 되려면 일단 감정이 없는 공감을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를 잘 굴려서 추리해야 한다. 또한, 장 선비처럼 과학을 잘해야 할 것 같고 수학도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한정적이고 범인이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지워버리면 남는 건 추리력밖에 없고 추리를 하지 않는다면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추리력이 관찰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찰력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해주고 중요한 단서 또는 증거를 찾아 추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리가 필요하기에 관찰력보다 추리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 속 과학 이야기를 소개해 보세요.

박지호 (도성초6)



추리력과 관찰력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

문정훈 (도성초6)



저는 책에서 부인의 시체를 조사하던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죽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그저 결혼만 했을 뿐인데 매일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치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장 선비 덕분에 죄인들은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아주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악은 멸망하고 정의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조선의 암행어사였다면 밥을 굶지 않게 두둑이 챙기고 산이 아닌 곳으로만 다니며 산적을 피하고 뇌물을 받은 나쁜 관리들은 증거만 생기면 흠뻑 법치에 따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여 하늘의 무서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야기는 방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은 방귀를 평균적으로 하루에 13번 정도를 꾸고 고기, 유제품, 생선 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원래보다 더 지독하고, 채소 등을 먹으면 방귀 냄새는 덜 지독하지만, 가스의 양이 많아 방귀 소리가 더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인간이 하루에 방귀를 이렇게 많이 꾸는 사실에 놀랐고 채소를 먹으면 방귀 소리가 더 크게 난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과학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는 이러한 과학 지식을 모르면 인류의 과학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점점 멍청해지고 과학은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귀는 인간이 많이 꾸지 않을 것 같지만 1년에 평균 4,745번을 꾸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학생 대부분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귀가 뻥하고 소리가 나는 이유는 방귀가 항문을 통과할 때 가스의 양에 비해 향문이 작으므로 방귀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살짝 덜 깨끗하지만 유용한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리력과 관찰력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권지한 (도성초6)



추리력과 관찰력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

김대연 (도성초6)



나는 유 노인 사건이 제일 인상 깊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의 노래로부터 시작된다. 장 선비는 이 노래가 유 노인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를 찾아간다. 유 노인은 자신의 친척 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유 노인이 암살당한다. 그리고 장 선비는 현장을 보존하여 범인이 장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장님을 불러와 심문한 끝에 청맹과니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청맹과니의 진술로 진짜 범인은 이광민이라는 걸 알고 이광민의 변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이광민에게 벌을 준다. 그러면서 유 노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나는 장 선비의 과학적 추리력에 대해 놀랐다.

내가 만약 암행어사라면 암행어사라는 이유로 권력을 내세워 내 마음대로 추리하는 것보다는 장 선비처럼 논리력과 추리력으로 꼼꼼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을 해결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관리들의 비리, 빼돌림 등은 단서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관리는 혼을 내주고 백성들의 불만을 풀어줄 것이다. 물론 암행어사가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런 의로운 일을 해야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리력과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리력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리력까지 없으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찰력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를 얻기 위해 관찰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찰력과 추리력은 서로서로 높아야 사건을 해결하기에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바로 수상한 노래 사건이다. 장 선비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어느 한 고을에 갔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장 선비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서당에 가서 유 노인을 만난다. 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 노인의 사촌 누이가 이광민과 결혼했는데 그가 부자의 딸과 결혼하려고 사촌 누이를 몰래 죽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 선비가 증거를 수집하다가 유 노인 집으로 돌아가 보니 유 노인이 죽어 있었다. 장 선비는 여러 가지 증거를 조합하여 유 노인을 죽인 자가 맹인이라는 걸 알아내고 마을의 맹인들을 불러 고초에 손을 짚게 하였다. 그러자 한 사람의 손에서 빨간 게 짚었다. 그 덕분에 범인을 잡고 배후에 이광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만약 조선 시대 암행어사였다면 나는 관직을 그만두고 산속에서 숨어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인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문제를 추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고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고력이 있어야만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력도 필요할 것 같다. 살인 사건 같은 건 매우 무서우므로 담력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고력과 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리딩엠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리딩엠의 교육방향, 교육목표 그리고 각 지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보고 싶다면

→ 리딩엠 홈페이지(www.readingm.com)

리딩엠에서 이뤄지는 글쓰기 등 교육활동의 다양한 결과물을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싶다면

→ 리딩엠매거진(magazine.readingm.com)

내 아이의 다음주 수업도서 목록, 지금까지 읽은 독서이력, 글쓰기 결과물을 보고 싶다면

→ 램스솔루션(online.readingm.com)



우리가 꿈꾸는 세상
리딩엄의 생각



중국상품 수입 규제 타당한가?

"중국상품 수입 규제에 찬성한다."

손유정 (도성초6)

1990년대,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급부상하여 세계 경제는 중국의 저가 상품 덕분에 고성장, 저물가의 호황을 누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시장 잠식으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 미국은 10여 년 동안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미국이 비틀거리는 사이 중국은 고부가 산업의 발전으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한다. 그 이후로는 미국이 중국 산업에 대해 억제와 압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상품을 할값에 쏟아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할값 물건에 소비자들의 눈이 돌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나는 중국상품 수입 규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라서 자유 경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망할 위기이고 그로 인해 실업자가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자유주의 시대라고 해도 소비자의 이득보다는 나라의 이득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상품 수입 규제를 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앱에서 중국 물건을 살 때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상품의 질을 생각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질문들을 나에게 되묻는다면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실업자들의 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상품의 좋지 않은 질을 알려주면서 잘못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상품 수입 규제에 반대한다."

권지한 (도성초6)

중국의 산업은 최근 매우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여 세계 경제는 중국 덕분에 고성장과 저물가를 누렸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자 실업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 후 중국의 고부가 산업이 발전하자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억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알, 테, 쉬로 유명한 초저가 상품을 파는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공략 중이다. 옛날과는 다르게 중국은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값싼 제품을 이용해 산업 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인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쇼핑 앱들이 망할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값싼 제품을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망하게 한 다음에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던 만큼 가격을 올린 후 중국 물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국상품 수입 규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저가인 상품을 살 수 있는 건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물품이 너무 저가라서 경쟁이 안 되므로 일단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법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물품을 앞세운 기업들에 밀려나게 돼서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의 말을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장 경제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옴에서 중등 학생들이 수업도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 후 특정 주제 또는 논제에 대해 쓴 글들입니다.

자아 찾기의 의미에 대해 쓰세요.

최승진 (역삼중1)



'수레바퀴 아래서'에서는 주인공 한스가 가난하지만 똑똑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곳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특별히 지능이 높았던 한스는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았다. 학교에서 정해 놓은 규칙에 더욱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러면서 한스는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된다. 어느 날 한스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던 하일르너를 만난다. 하일르너의 자유롭고 유쾌한 행동을 본 한스는 자신도 것처럼 되고 싶어하며 그를 따라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 있던 불쾌한 감정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며 점점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커져가며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한스와 하일르너는 처음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한스는 매우 똑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다. 반면 하일르너는 유쾌한 성격이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확실하고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 청소년 같은 성장하는 시기에는 하일르너와 같은 개방적인 삶이 바람직하다. 한스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그것을 건강하지 않게 표출한다.

자신의 자아를 찾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어른스러워지고 생숙해짐을 느낄 수 있다.



소설의 갈등을 설명하고 나만의 소설을 창작해 보세요.

이야진 (진선여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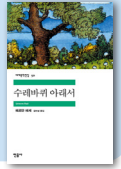
작품지문 읽어내기 후반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은 '야, 춘기야'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춘기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의 허리띠도 하고 엄마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간 적이 많다. 어느 날 춘기가 엄마 몰래 집에서 엄썩했는데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춘기의 머리를 보고 춘기에게 화를 내 갈등이 시작된다. 할머니가 춘기네 집에 와서 춘기에게 너는 사과처럼 오랜 시간 경험을 쌓게 되어 더 자랄 것이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감동적인 말을 하고 난 후에 엄마와 춘기의 갈등이 끝이 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끝난다. 이 소설을 읽고 꼭 춘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소설에서의 갈등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갈등의 유형이다. 갈등의 유형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뉘는데 외적 갈등이란 인물과 인물, 또는 사회와 인물 등 한 인물과 외부환경이 대립해 생기는 갈등이고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요구가 동시에 일어나 생기는 갈등을 말한다. 두 번째는 갈등의 역할이다. 갈등의 역할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사건을 전개하는 요소이고 둘째는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셋째는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소설을 창작한다면 로맨스,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소설을 쓰고 싶고 제목은 마지막 밤이라고 쓸 것이다. 그리고 독자의 나이를 생각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 볼 만한 이야기로 맞추어 쓸 것이고 내용은 사춘기 소녀와 젊은 엄마의 갈등 이야기인데 소녀가 평소같이 엄마와 싸우는데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119에 실려가 검진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들은 소녀는 엄마를 위해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이야기이다.

자아 찾기의 의미에 대해 쓰세요.

김서준 (역삼중1)




한스는 죽도록 노력해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결국 학교를 나온 뒤 일을 하다가 자살하게 된다. 왜 한스는 자살을 했을까? 일단 어린 시절 한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스에게 기대와 관심은 일종의 압박이었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였다. 신학교의 엄격한 규칙 때문에 한스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마침 친구 하일르너가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던 사람의 배신으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한스의 친구였던 하일르너는 모범생이었던 한스와는 정반대로 자유분방한 몸상이 겸 시인이었다. 그는 학교의 제도에 반해 여러 가지 사고를 치다가 결국 학교를 탈출해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는 하일르너가 한스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병에 걸릴 정도로 심한 짓을 참지만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스처럼 모범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신경쇠약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옳지 않은 건 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일르너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아를 찾는 것은 간단하게 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기쁘는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아를 찾기 위해 방황하고 나 또한 자아를 찾기 위해 방황해 왔고, 지금도 그리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역시 자아를 찾아 방황할 것 같다.

소설의 갈등을 설명하고 나만의 소설을 창작해 보세요.

주여원 (진선여중1) < 



후반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은 '야, 춘기야'이다. 왜냐하면, 그 소설에서 나의 흔한 일상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등장인물의 모습에 공감되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춘기가 염색하거나 부모님의 물건을 몰래 사용하는 등 나와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해보자면, 춘기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춘기는 엄마 몰래 모든 것을 다해봤고 그것에 대한 엄마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엄마는 춘기에게 그런 일은 어른이 되어서 하라고 하시기에 춘기는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갈등의 요인은 엄마와 춘기의 갈등이다. 춘기는 어른이 되고 싶고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는데 엄마의 생각은 그것과 정반대로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어른이 되어서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고 춘기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어 갈등이 심해지게 된다. 두 사람은 크게 싸우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갈등을 멈추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된다.


내가 소설을 창작한다면 시작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적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엄마의 집안일을 도우며 효과하고 그렇게 효도를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큰 사고를 친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나게 되고 나와 엄마의 갈등이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내가 친일파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친일파들의 재산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일파들의 재산은 사실상 나라를 팔고 나라와 바꿔서 얻은 재산이기에 나라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일제강점기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길 수 있으니 한 번 강하게 나서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얻은 상처들을 하나씩 지워나가야 한다. 지금은 친일파라는 과거의 상처를 지워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나는 친일파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혁명의 계기와 결과를 설명하세요.

정지우 (도곡중2) < 



유럽은 산업혁명을 이루며 국제적으로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내용은 유럽이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 계기와 산업혁명입니다.


유럽은 흑사병과 기근 등 굶주린 재난을 겪으며 르네상스를 이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배를 만들어 항로를 개척해 인도로 가서 부를 축적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배를 만들어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다가 우연히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여러 사업가들이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지역을 탐험하며 아메리카에서는 비싼 설탕의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가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 아프리카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들이며 그들을 착취하여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 부를 바탕으로 기계화를 이루며 산업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기계화입니다. 이 기계화의 시작은 영국의 발명가인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란 석탄을 태워 그 열에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리며 공장에 기계를 가동시키며 물품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동서양 경쟁에서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며 동양을 손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서양의 나라들은 동양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거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양보다 앞서게 되며 세계를 선도하게 됩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남기중 (청담중2) < 



우리나라 즉, 한국사를 읽다 보면 일본과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다. 그 중 하나의 예로 일제강점기를 얘기할 수 있다. 친일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등을 돌린, 나라를 버린 매국노를 뜻한다. 사람들마다 친일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양하지만 나는 친일파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친일파로 유명한 사람은 이완용, 노덕술, 윤덕영이 있다. 이완용의 을사오적이 한 짓은 을사년에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것과 윤덕영 등 8인과 같이 경술년에 일본에 나라를 완전히 팔아넘긴 것이다. 노덕술이 한 짓은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한 것이다. 광복 후에 이런 친일파를 없애기 위해 반민특위를 만들었지만 이승만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절친여고생 정윤이와 희정이의 독서기록

같은 책 다른 생각



리딩엠이 직접 만든 필/독/도/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래 전에 잃어버려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내 중고등 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만난 설렘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절친여고생 정윤이와 희정이의 독서기록

같은 책 다른 생각

리딩엠 ReadingM Publisher

절친여고생 정윤이와 희정이의 독서기록

같은 책 다른 생각

김정은, 한희정 지음

리딩엠 ReadingM Publisher

한국일보, 뉴시스에 보도된 바로 그 책!

두 여고생 저자들이 <인문, 과학, 사회, 문화예술>등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쓴 “다른 생각이 담긴 독서록”을 통해 톡톡 튀는 시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만나볼 수 있다.

절친 여고생 두명의 같은 책 다른 생각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서 목록이 실려있어요!

정윤이

아름다운 '공감'이
책제목 : 그림공부, 사랑공부
출판사 : 엘리스 - 지은이 : 조정숙

희정

'아름다운'은 케인마다 다르다
책제목 : 그림공부, 사랑공부
출판사 : 엘리스 - 지은이 : 조정숙

부록 정윤이와 희정이가 추천하는

구분	도서명	장르
1	국경없는 의사학	역사
2	사담담의 미술감상	미술
3	세탁사로 가는 과학 시간기	과학
4	과학공부과 생활일일 -일용의 기초-	과학
5	후론 지혜, 바다	수필
6	순서를 모르는 초등 수학	수학
7	그림공부, 사랑공부	수필
8	나의 자기의 것만 가지고	수필
9	수업	수필
10	수업	수필
11	초등 수학 100문제	수학
12	초등 수학 100문제	수학
13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14	수업	수필
15	세상을 위한 과학	수필
16	세상이 바뀔 때 어떻게	수필
17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18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19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20	나의 자기의 것만 가지고	수필
21	세상을 위한 과학	수필
22	세상이 바뀔 때 어떻게	수필
23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24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25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필

구분	도서명	장르
26	이웃	수필
27	이웃	수필
28	이웃	수필
29	이웃	수필
30	이웃	수필
31	이웃	수필
32	이웃	수필
33	이웃	수필
34	이웃	수필
35	이웃	수필
36	이웃	수필
37	이웃	수필
38	이웃	수필
39	이웃	수필
40	이웃	수필
41	이웃	수필
42	이웃	수필
43	이웃	수필
44	이웃	수필
45	이웃	수필
46	이웃	수필
47	이웃	수필
48	이웃	수필

우리가 꿈꾸는 세상
리딩엄의 생각



주 4일제 도입 타당한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

최승진 (역삼중1)

요즘 '주 4일제'라는 이슈가 뜨고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주 4일제란 일주일 동안 4일 일하고 3일을 쉰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2일을 쉰다. 하지만 해외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주 4일제 도입에 관해 이야기를 하거나 일부는 이미 도입을 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워라밸이 유지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하게 된다면 지속되는 야근으로 과로와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주 4일제는 4일을 일하기 때문에 일과 휴식을 적당히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계발이 가능해진다. 쉬는 날이 늘어나며 마음 편히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해 계획할 시간이 늘어난다. 똑같은 이유로 건강관리와 육아시간 확대도 가능해진다. 한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금 감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 4일제 도입 초반에만 그럴 뿐 시간이 지나고 이에 적응하게 되면 크게 되지 않을 문제이다. 많지 않은 근무시간과 스트레스로 이직률과 퇴사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쉬는 날이 늘어나므로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다. 내 생각에 이 많은 근거들 중 도입해야 하는 가장 적극적인 근거는 워라밸 유지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근무를 많이 하여 힘들어하는 상황을 주 4일제 도입으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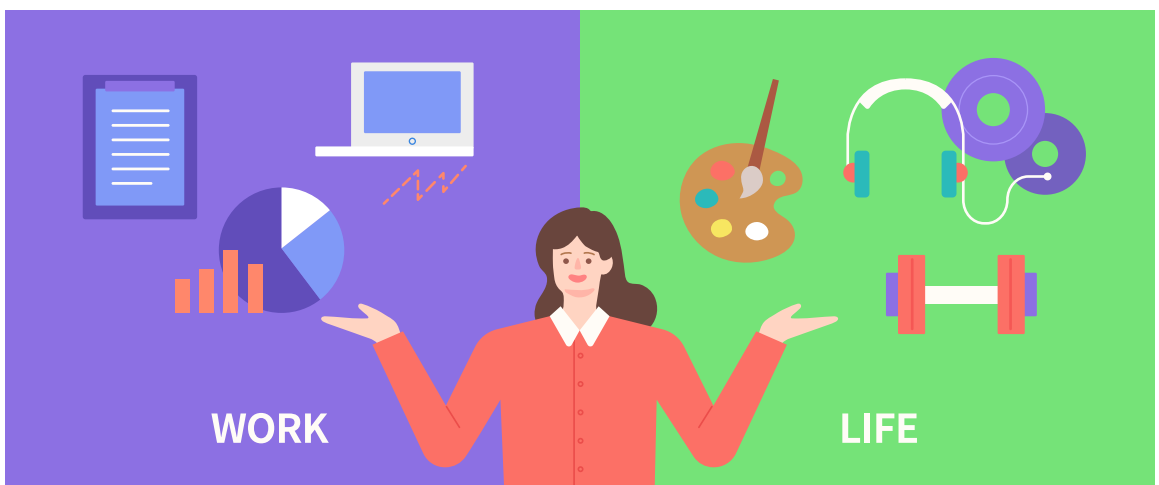
"주 4일제 도입에 반대한다."

민정우 (역삼중1)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 5일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전 주 6일제 근무인 주 44시간 근무에서 주 5일제 근무인 40시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기서 4일로 하루가 더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 등을 많이 공유하며 일해 간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5일로도 부족할 수 있는데 4일을 근무하면서 어떻게 공유하라는 걸까? 그러므로 소통시간 감소가 일어나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주 5일을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한 집도 있을 텐데 4일로 줄이면 더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금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사정상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잔업 수당과 같은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어 연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많다. 그래서 이 경우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임금 감소 폭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이유를 그냥 넘긴 채 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통시간 감소, 임금 감소 가능성, 가정 생활비 부담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보면 생산성 하락 우려, 근로 환경 양극화 등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로 주 4일제 근무는 시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옴에서 일간지에 나온 칼럼들을 읽고 토론한 후 정리한 글들을 정정별로 나누어 실었습니다.

ISSUE 2 '친환경 고단백' 소고기쌀-애벌레... 맛-식감 개선 축제



東亞日報

104 since 1920



연세 02-2020-0114 구독: 매일 1588-2020

당기 4357년 일목 4월 11일 부친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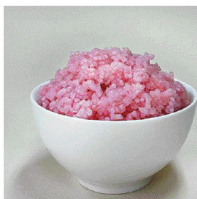
Pick!

A27

Opinion

'친환경 고단백' 소고기쌀-애벌레... 맛-식감 개선 축제

(갈색거저리 유송)



과학으로 세상 보기

대체식품, 미래식량 될까

얼마 전 '소고기 쌀' 개발 소식이 화제가 됐다. 논문에서 따르면 연세대가 주축이 된 국내 연구자들은 쌀알 표면에 젤라틴과 효소를 코팅한 뒤 소에서 얻은 근육세포와 지방 세포를 배양했다. 세포는 쌀알의 틈과 겉바 면에 달라붙어 증식한다. 이렇게 얻은 소고기 쌀로 지은 밥은 소고기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 같은 영양 성분도 갖췄다. 진짜 고기의 모든 면을 재현한 100% 배양육을 경제력 있는 가격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같은 '하이브리드 식품'은 머지않아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전쟁 등 비상 상황이나 자급할 국가의 영양 결핍을 사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채식주의자들은 소고기 생각할 때 소고기 쌀 같은 배양육 함유 식품으로 위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은실가스 줄이는 대체육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은 미래 식량 중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오늘날 콩(대두)과 옥수수 같은 소의 사료 작물을 생산하는 데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의 3분의 1이 쓰이고 그 양은 11억 10억에 이른다. 먹인 사료 무게에서 얻은 고기 무게를 나눈 값인 사료전환율이 2~10이므로, 돼지, 소의 순서로 값이 커진다 사람이 직업을 직접 먹는 것에 비해 엄청난 낭비다. 게다가 고기를 얻는 과정에서 인위적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무려 71%으로 전체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은실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신생하는 지구에서 고기 소비를 채우는 식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극단적인 기온과 홍수, 병충해로 인한 사료작물 흉작과 탄소 배출은 환경 비용 증가로 최근 수년 새 고기값이 폭 올랐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생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50g으로, 지구촌 곳곳의 많은 사람이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많지만 기후변화로 미래에 고기값이 급등하면 50년 전처럼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다. 한편 동물성 단백질과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채식의 중요성을 선택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채식만 하다 보면 필수 영양의 단백질이 부족해져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최근 대체식품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대체식품이란 기존에 먹던 식품을 대신하는 식품이다. 대표적인 대체식품은 소위 '콩고기'로 알려진 식물 대체육으로 콩주와 대두와 밀 같은 작물이 주재료다. 100여 년 전 상용화됐다. 대두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고기와 비슷하고 밀은 고기 같은 식감을 내는 글루텐 단백질이 들어 있

다. 여기에 고기의 맛과 향을 내는 각종 첨가제를 더하면 대체육이 완성된다.

그런데 대두는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여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어 먹으면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완두콩과 렌틸콩 등 다른 콩류의 단백질을 쓰는 대체식품이 늘고 있다. 1세대 식물 대체육이 맛보다는 영양에 초점을 맞췄다면 2세대는 맛까지도 진짜 고기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기도 훌륭한 대체식품

예전에는 식재료가 생각하지 않았던 곤충으로 대체식품을 만드는 연구도 활발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전통적으로 곤충을 하던 문화도 있지만 별미로 먹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로 한국인이라면 한 번 먹은 마라탕을 반대기는 누에-방의 애벌레가 성공으로 바뀌는 파도기 상태로 곤충 대체식품으로 볼 수 있다.

반대기의 기초탄에서 잠정할 수 있듯이 곤충은 단백질 양이러리, 식용 귀류라미는 건조 무게가 원래의 65%를 차지한다. 게다가 분유학적 식재료다 곤충이 사람이 더 가까운 곤충 단백질은 아미노산 조성이 식물 단백질보다 우수하다. 여기에 지방, 타닌, 마라틴 등 여러 영양소가 같이 들어 있고 외골격을 이루는 성분인 키틴은 면역에 도움이 된다. 오늘날 널리 연구되는 식용 곤충은 갈색거저리 유송(애벌레), 누에(연애기), 귀뚜라미(성체) 등이 있다.

곤충을 키우는 데 필요한 땅과 물은 가축 사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친환경이다 대가 먹이 효율성으로 생체량으로 바뀐다. 그럼에도 아직은 많은 사람이 곤충을 먹는다는 데 거부감이 있어 대체식품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곤충 단백질 생산량은 6000여에 불과하고 일부가 곤충 기반 햄버거에 들어가지만 주로 반려동물 사료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곤충은 우리가 즐겨 먹는 게나 새우 같은 갈각류와 분류학상으로 가깝다는 식의 과학자들이 알려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

한국인은 대체식품 선구자

해조류도 최근 주목받는 대체식품이다.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해조류가 무슨 대체식품이나 한정지만 우리나라 일본이 예로, 지구촌 사람들의 평균 해조류 섭취량은 미미하다. 서구인들은 해조류를 먹을 수 없게 생각하지 않았다(해조류의 영어 seaweed를 직역하면 바다잡초였다).

해조류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탄수화물(다당류), 지방, 마라틴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생장이 빠르다. 최근 김 수출이 크게 늘고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식품으로 보는 인식이 전방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조류를 재료로 쓴 신생 대체육 함께 단백질이나 다당류를 추출해 식물 단백질로 쓰는 연구가 진행되면 해조류의 칼로리 거머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균류(대체식품) 이용한 대체식품 연구도 활발하다. 보통 균류(대체식품)라고 하면 도양 곰팡이인 부사균의 균사체가기는 뿌리채취 곰팡이 구조를 가진 것으로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이 많아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낸다. 1868년 영국 식품화학사가 연유 갈고 공으로 대량 생산해 'Queen'이라는 브랜드로 출했다. 그 뒤 특허가 만료되고 친환경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사실 균류의 자생체인 버섯은 이미 식품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찰 요리에서 표고를 비롯해 여러 버섯이 고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버섯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많이 먹는 식품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적다. 배양육의 경우 진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진짜 고기 같은 식감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달고 쓴맛이 나는 배양육 닭 살도 70%에 식물 단백질 30%를 섞은 것은 맛을 내고 있다. 배양육의 생산 비용이 우리 낫춰도 고기의 수식 배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다. 배양육은 감지산업으로 심바를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소고기 쌀' 시대 열까

대체식품은 미래 식량으로서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식량 및 친환경성 등과 관련해 갈 길이 멀다. 배양육의 경우 진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진짜 고기 같은 식감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달고 쓴맛이 나는 배양육 닭 살도 70%에 식물 단백질 30%를 섞은 것은 맛을 내고 있다. 배양육의 생산 비용이 우리 낫춰도 고기의 수식 배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다. 배양육은 감지산업으로 심바를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진짜 고기 '진영'에도 소의 배양 생성 장내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거나 사육 효율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호우와 브라질의 농장에서 이미 황기 사료를 쓰자 시작했다. 완전히는 전량생산 걸리지 않는 가족을 만드는 연구도 한창이다.

여전히 대체식품이 저연 그대로의 식품 만들 비용도 더러울 거라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사료작물 흉작, 전염병 창궐, 유엔 차원의 엄청난 탄소세 부과 등으로 고기값이 '급락'이 되는 등 저연 식품의 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대체식품들이 지금보다 각광받을 때도 모른다. 그렇다면 연안생 계층을 조금 넣은 '계맛살'처럼 한우를 조금 넣은 '한우' 5% 소고기 및 '한우'이 마트에서 팔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곤충은 단백질은 물론이고 각종 영양소를 갖춘 미래 식재료다. 식용악마(연애기) 인공한 식용곤충 갈색거저리 유송, 게이타이(거저리)

산뜻한 봄날, 조선시대 역사속으로의 산책 제2회 전라 변역서 특별프로그램 -마상무예공연 및 승마체험 -전통배우와 함께하는 연극과 마술쇼 -어린이 무과 강서대회 -어린이 싱어롱쇼(로보카롤리) -솜똥 댄스 챌린지 경연대회 체험프로그램

대체식품은 미래식량이 될 수 있을까?

"대체식품은 미래식량이 될 수 있다."

남기중 (청담중2)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축산업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체식품 연구가 한창이다. 대체식품의 종류는 곤충 즉 번데기 같은 것이다. 또한 해조류를 이용한 대체식품 연구도 활발하다. 해조류를 이용한 것에는 김이 있다. 또한 절에서 스님들이 고기 대신 먹는 버섯 즉 균류를 이용한 대체식품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기 세포를 이용한 배양육도 있다.

나는 대체식품이 미래식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배양육이 보통 고기 가격의 2배가 되기는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그 문제는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대체식품은 지구온난화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그 이유는 축산업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대체식품을 발전시킨다면 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동물권까지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대체식품의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도 하다. 대체식품 중 이미 우리의 일상에 익숙한 것에는 신라면에 들어 있는 콩고기와 두부너겟 등이 있다. 음식 문화 또한 더욱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자연식품의 가격이 금값처럼 높아진다면 대체식품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

대체식품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동물권 보호가 실제로 되기보다 배양육을 위한 혈청 때문에 오히려 동물권이 보장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연구 중이니 언젠가는 혈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상용화 또한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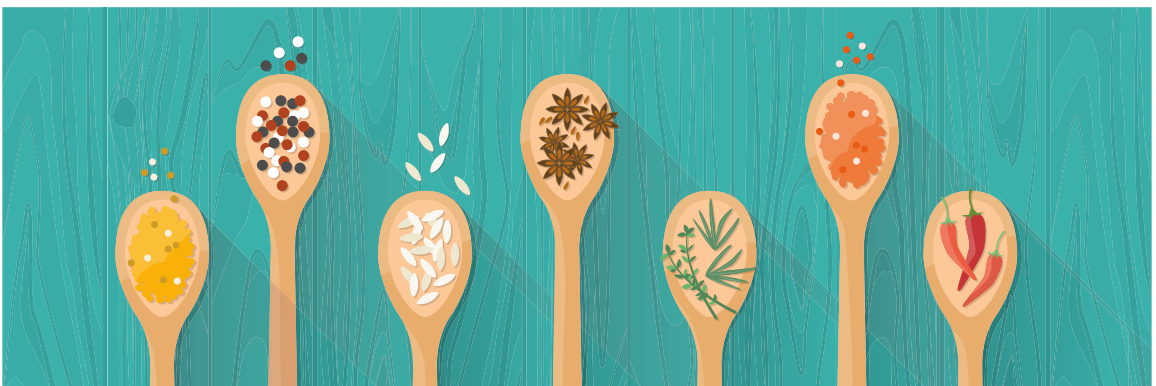
"대체식품은 미래식량이 되기 어렵다."

정지우 (도곡중2)

요즘 기후위기 문제가 심화되며 가축을 사육할 때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배양육 같은 대체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그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며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에서 채취한 세포로 만든 대체육, 곤충을 요리해 먹는 방법, 균류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 등 많은 대체식품 후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다.

첫 번째로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로 만든 대체육은 제작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예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체육은 일반 고기에 비해 2배나 비싸다. 그리고 이 대체육은 일반 고기와 유사하지만 영양성분 면에서는 일반 고기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 두 번째로 곤충을 요리해 먹는 대체식품은 곤충처럼 생겼기에 소비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크며 곤충을 먹는 행위 자체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 일으킨다. 세 번째로 균류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은 고기와 비슷하게 가공할 수 있지만 고기의 풍미는 살리기 어렵고 이 식품 또한 영양 측면에서 기존 식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모든 식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첨가제에도 안정성 검사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식품은 현재의 식품보다 경제적으로나 영양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대체식품은 미래식량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미래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대체식품은 이런 하자가 있어도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에서 진행하는 주제별신문칼럼 수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주제별신문칼럼 수업

1. 주제별신문칼럼 수업이란?



초6~중3 대상으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자연, 환경, 정치, 국제, 예술, 문화, 언어,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견해가 담긴 칼럼들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배경지식, **통찰력, 사고력, 문해력 등을 함양**시키는 수업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최근 게재된 칼럼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2. 주제별신문칼럼 수업 방법

- ▶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 쌓기**가 이루어 집니다.
- ▶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면서 **어휘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 ▶ 문단별 중심문장을 찾고 **내용 요약하기**가 진행됩니다.
- ▶ 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 논제를 읽고 **토론하기**가 진행됩니다.
- ▶ 칼럼 주제를 읽은 후에 **원고지 글쓰기**가 진행됩니다.
- ▶ 씹킹 맵을 활용하여 **논리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 ▶ **국어문법** 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 사자성어, 격언, 속담 학습을 통해서 **문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3. 주제별 신문칼럼 수업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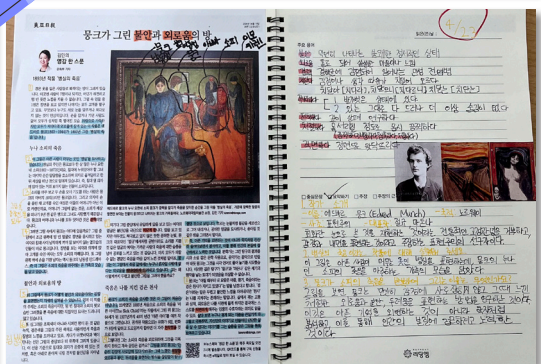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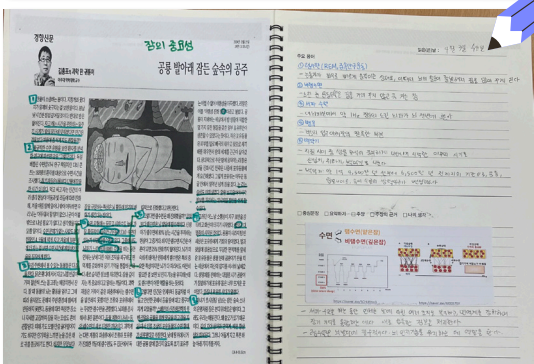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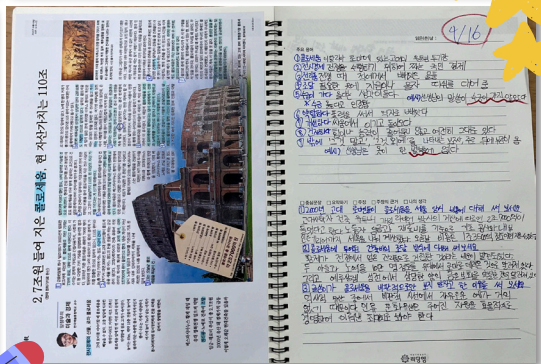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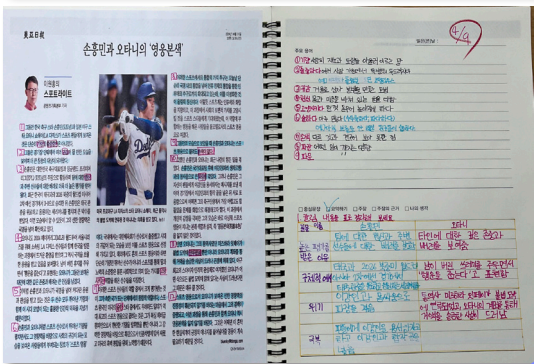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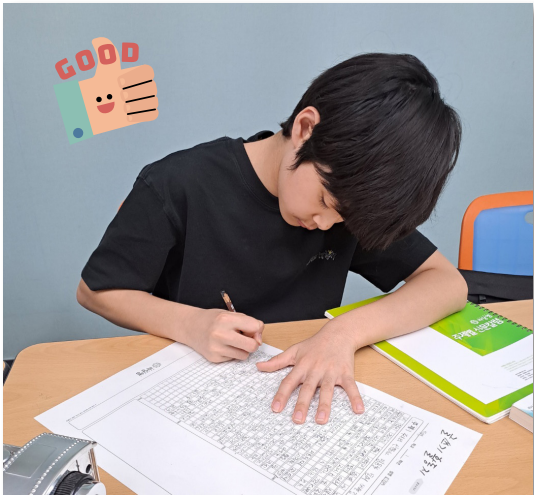
세부 순서 (예시)

〈주제별신문칼럼수업(초6~중3)〉
매월 1~3주차

- 신문칼럼수업 : 40~50분
- 휴식 : 10분
- 워크북 및 글쓰기 수업 : 1시간 30분~40분

〈칼럼 주제 글쓰기(초6, 중2~3)〉
매월 4주차

- 신문칼럼수업 및 칼럼 주제 글쓰기 : 1시간 30분
- 휴식 : 10분
- 워크북 수업 : 50분



2024년 리딩팀 역삼센터 <주제별신문칼럼> 수업 및 결과를 사진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에서 진행하는 발표토론심화수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발표토론심화수업 소개

1. 발토심 소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개편된 교과서 곳곳에 '설명해보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능력이 중요시** 됨에 따라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에서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발표토론심화수업**, 일명 **발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발토심 수업 방법

- ▶ 주제발표토론심화수업(초1~초6)은 **매월 4주차에 30분 독서확인**(어휘부분, 독서 퀴즈부분)이 이루어지고, **1시간 30분 주제발표 및 토론심화수업**이 진행됩니다.
- ▶ **각 교육센터 지도교사**가 발표토론심화수업에 대한 **공동참여-공동회의-공동교안**을 만들었습니다.
-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표수업, 협업수업, 토론수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발표를 직접 수행**합니다.

3. 발토심 수업의 흐름

- 1) 독서확인(워크북 작성) : **30분**
- 2) 쉬는 시간 : **10분**
- 3) 발표토론심화수업 : **1시간 20분**

세부 순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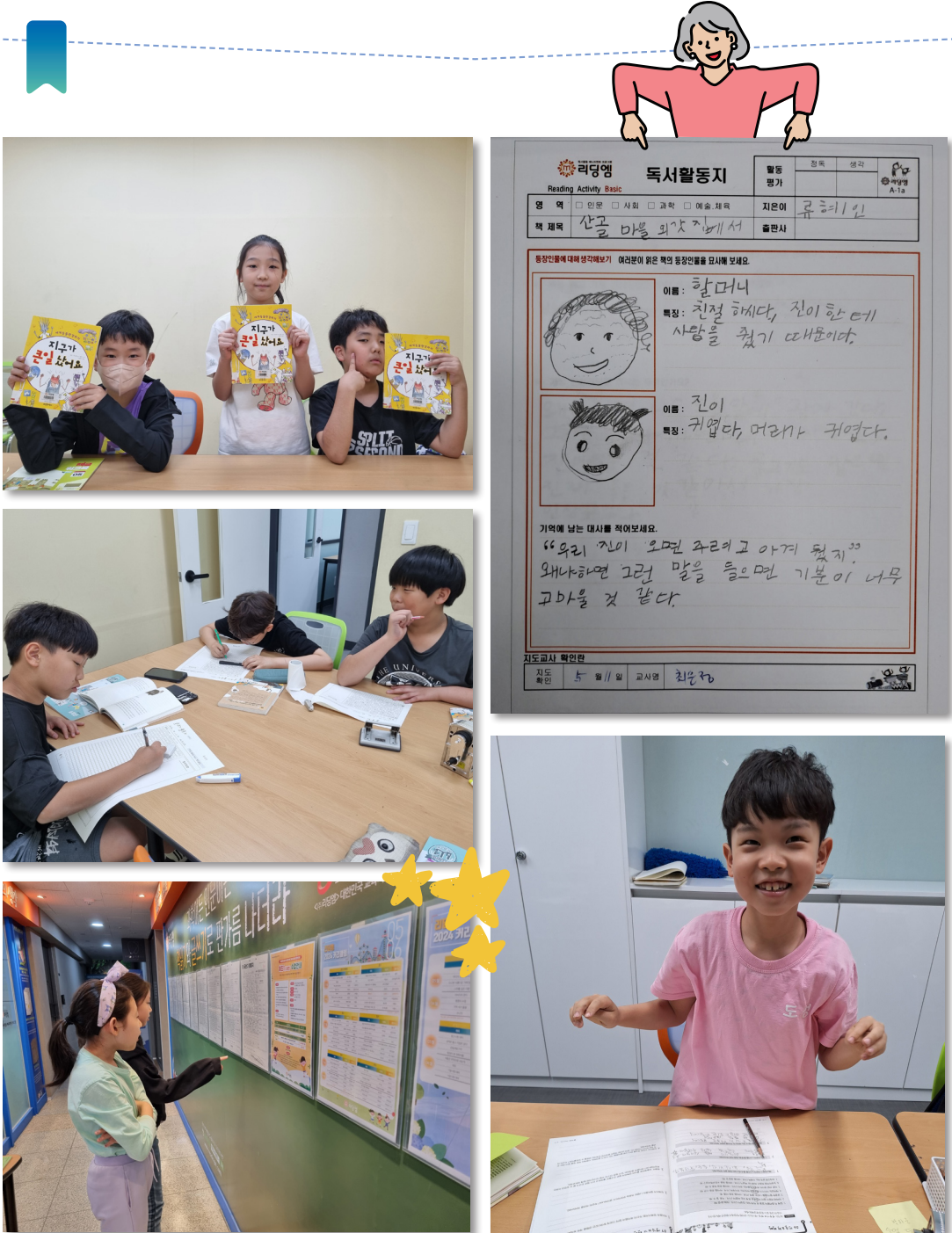
<토론 방식인 경우>

- **주제 설명**(관련 영상 시청 또는 신문기사, 사진 자료 읽기 후 주제 설명) : **15분**
- **찬반 입장** 정하고 **팀 구성**하여 자리 재배치하기 : **5분**
- **입론**(주장 펼치기) **준비 및 작성**(활동지) : **5분**
- **입론**(주장 펼치기) **발언** : **10분**
- **반론** 준비 및 **작성** : **5분**
- **반론** 및 **재반론** **발언** : **15분**
- **최종 발언**(주장 다지기) **준비 및 작성** : **5분**
- **최종 발언**(주장 다지기) : **10분**
- **토론** **판정** 및 **교사 평가**, 칭찬스티커 배부 : **10분**

<발표 방식인 경우>

- **주제 설명**(관련 영상 시청 또는 신문기사, 사진 자료 읽기 후 주제 설명) : **15분**
- **활동지 작성** : **35분**
- **발표**(및 경청 퀴즈 진행 가능) : **20분**
- **교사 평가** 및 칭찬스티커 배부 : **10분**

* 위의 세부순서는 해당월의 주제나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론은 '주장 펼치기'로, 최종 발언은 '주장 다지기'로 표현 가능합니다.
* 독서확인(워크북 작성) : 01.이원책은풍곳 ~ 04.나는최고작작



2024년 리딩엠 역삼센터 <발토심> 수업 및 결과물 사진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활동 내용: **인물의 성격**

경건, 착함, 왜곡된 여자, 페넬로페를 보는데 안 들리고 '여자가인 여자'라고 불리니 마비라고 망했다.

민기 조심성이 없음, 왜곡하면 개성있음, 누가 봐도 개성성 발에 발려서

정수 나뭇잎, 여자의 피를 보고, 놀라서

대위 더러움, 크의 신발을 갈라놔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주재야 여자랑 할 일을 보는 건 안 좋은 거야 나도 너가 싫음은 봤잖은 건 알 아. 하지만 그래도 너 가만 있을 건데 여자랑 계속 보면서 웃었잖아 그건 큰 실수야 그런데 우리랑 친하게 지내봐 주재야 말을 잘 해서 너가 싫고 하던 장수 똥똥을 볼 때였잖아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4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주재야 여자랑 할 일을 보는 건 안 좋은 거야 나도 너가 싫음은 봤잖은 건 알 아. 하지만 그래도 너 가만 있을 건데 여자랑 계속 보면서 웃었잖아 그건 큰 실수야 그런데 우리랑 친하게 지내봐 주재야 말을 잘 해서 너가 싫고 하던 장수 똥똥을 볼 때였잖아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할 보름을 흘리는 것 나쁜 거야 그 보름의 주인이 잃었지. 물론 정 원수야. 17개 정도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여러 개를 흘려줘야. 많은 흘리지 말고 그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할 보름을 흘리는 것 나쁜 거야 그 보름의 주인이 잃었지. 물론 정 원수야. 17개 정도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여러 개를 흘려줘야. 많은 흘리지 말고 그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할 보름을 흘리는 것 나쁜 거야 그 보름의 주인이 잃었지. 물론 정 원수야. 17개 정도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여러 개를 흘려줘야. 많은 흘리지 말고 그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할 보름을 흘리는 것 나쁜 거야 그 보름의 주인이 잃었지. 물론 정 원수야. 17개 정도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여러 개를 흘려줘야. 많은 흘리지 말고 그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할 보름을 흘리는 것 나쁜 거야 그 보름의 주인이 잃었지. 물론 정 원수야. 17개 정도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여러 개를 흘려줘야. 많은 흘리지 말고 그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리딩엔 독서활동지

활동 평가: 우수 양호 보통

주제: **안나카레나** 외

지명: **서울**

교사: **김민서**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라! 책 속에서 가장 인상깊은 인물을 골라라 그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 책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성격인가?

주변 인물 왜사라인 여자 가장 정을 봤기 때문으로 우리 작품 왜사라인 말을 잘 해서 지극히 왜사라인 때문이다.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자유롭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할 보름을 흘리는 것 나쁜 거야 그 보름의 주인이 잃었지. 물론 정 원수야. 17개 정도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여러 개를 흘려줘야. 많은 흘리지 말고 그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도교사 확인란: 이름 **5월 20일** 교과목 **국어** 서명 **김민서**

2024년 리딩엔 역삼센터 <발돋움> 수업 및 결과물 사진



2024년 리딩엠 역삼센터 <발토심> 수업 및 결과물 사진



- ◆ 리딩엠 발표토론심화수업은 많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학부모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 ◆ 리딩엠은 발표토론심화수업을 통해 좀 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대비! 리딩엠과 함께해 보세요!

리딩엠 직영교육센터 지도교사의 교육칼럼을 소개합니다.



리딩엠 직영교육센터 총괄원장 이상준

초등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

평생 필요한 글쓰기

디지털 콘텐츠가 만연한 시대임에도 글쓰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 1~2학년의 국어수업이 연간 34시간 늘어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한글 및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에 따르면, 국어영역에서 선택과목이었던 '작문'이 공통과목에 포함되는 점도 눈에 띄니다. 고교내신 체제 개편 확정안에는 '지식암기 우주 평가(5자선다형)를 가급적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글쓰기는 자신을 증명할 수단으로 대학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교수에게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 수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리포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상사나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과 감성을 총동원하여 보고서 혹은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글쓰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인의 머리와 가슴을 움직여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글쓰기는 생산적 취미활동이자 삶의 안식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에 지친 어른들이 시간을 쪼개어 독서토론 모임을 찾거나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필자도 과거에 삶의 터널을 지날 당시, 글을 쓰면서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며 적잖은 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글쓰기가 정서 안정에 특효이자, 내적 성숙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곧 왕도’인 글쓰기

그렇다면 이토록 평생 필요한 글쓰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방법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게 그리 값진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막막해서입니다. 원고지 앞에 처음 앉아 본 아이들은 보통 거대한 벽을 마주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잠깐의 노력으로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시간과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글쓰기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밥 한 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쯤 되면 ‘체화’라는 말을 사용해도 됩니다. 몸으로 익혀야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야 진짜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가 인풋이라면 글쓰기는 아웃풋입니다. 인풋이 없는 아웃풋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즉 머릿속에 글감이 많은 아이들이 좋은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에는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글쓰기를 잘하려면 독서라는 간접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자와 함께 4년째 수업 중인 학생 A가 있습니다. 원고지 글쓰기 시간이 되면 A는 이따금 남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테면, ‘오늘은 편지 형식으로 써봐도 될까요?’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그 후 A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주제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으면서도 형식상 독특하고 창의적인 글을 완성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미소를 짓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필자 A의 머릿속에서 역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A에게 글쓰기는 더 이상 학습이라기보다는 놀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체화’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 말입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아이 글쓰기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어차피 장기 레이스입니다. 길게 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잘만 갈고 닦으면 글쓰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자산이 되어 줍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을 이길 인내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의 실력은 반드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1년에 4번 계간지로 발행되는
매거진M 온라인 디지털 라이브러리

리딩엠 매거진M 온라인은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각 교육센터의 결과물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만든 분기별 매거진M을 웹/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magazine.readingm.com



리딩엠 매거진

연도별로 찾아요

2024년 ~ 2023년

2024년

PDF [2024년 봄호] 2024년 봄호_리딩매거진_특별판통합본

리딩엠 매거진

온라인은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각 교육센터의 결과물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만든 분기별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리딩엠 매거진



더보기



[2024년 봄호]

2024년 봄호_리딩매거진_특별판통합본

PDF 다운로드

< 1/1 >

리딩엠과 함께한 이야기

리딩엠과 함께한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만나보세요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만나는 리딩엠 소식! 리딩엠 공식 SNS 계정 안내

리딩엠은 2020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보다 쉬운 리딩엠 교육내용 전달, 이벤트 전개, 독서관련 신규 콘텐츠, 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톡 채널 / 유튜브" 공식 계정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양질의 재미있는 이벤트 소식으로 소통하는 리딩엠이 되겠습니다.



팔로우!
좋아요♡



-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  **@readingm.official**
-  **@책읽기와글쓰기 리딩엠**
-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면?
해외에서도 리딩엠수업이 듣고싶다면?

리딩엠 비대면 라이브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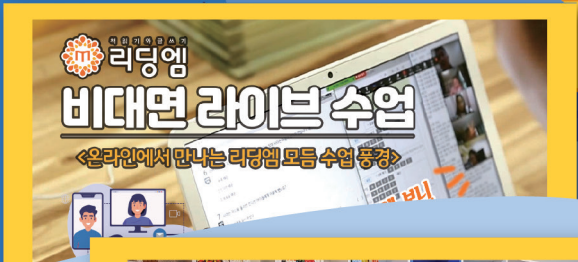
리딩엠은
비대면 라이브수업으로 그대로 전환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리딩엠은
꾸준한 독서와 꾸준한 글쓰기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비대면 라이브 수업을 통해
리딩엠과 만나고 있습니다.



ON AIR





☆☆☆
소비자가 선정한
2024
대한민국
교육대상
☆☆☆

ChosunMedia
조선일보, (주)조선교육문화미디어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권위

<(주)리딩엠> 대한민국 교육대상
초중고 독서활동부문 **9년 연속 수상!**



책임기와 글쓰기 리딩엠 역삼교육센터

우리가 꿈꾸는 세
리딩엠의 생각

이마트/도성초 옆 도곡프라자 3층



<초등부 프로그램>

(책임기와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기	독서 (매주 수업도서 1권) + 교사추천도서 1권 + 학생선택도서 1권~2권
수업진행	1주 1회 2시간 (모둠) 집에서 책을 읽고 학원에서 모둠 수업을 통해 어휘력과 배경지식, 말하기, 글쓰기, 첨삭 진행 <홈미유발 → 정독 → 내용이해 → 어휘활동 → 사고력 → 비판적, 창의적 표현 → 글쓰기 → 첨삭지도> 덤! 미래내 국어 초등교과서 어휘·맞춤법·동음이의어·다의어·문장의 이해·문법 속담과 관공구·비유적 표현·높임법·사동표현·문장성분· 띄어쓰기
특징/효과	정독습관을 만들고 독서 후 활동 (어휘/내용/토론/글쓰기)을 체계적으로 진행 어휘력과 배경지식의 극대화 그리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글쓰기 능력 완성 학교 수행활동·서술형과 논술형 등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독서이력관리 편독문제를 해결하고 다양독과 다량독 실현
보조교재	리딩엠 책갈 위크북 /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 국어

<중등부 프로그램>

(책임기와 글쓰기 프로그램 + 주제별 신문칼럼)

책임기	독서 (매주 수업도서 1권 + 교사추천도서 및 학생선택 도서 추가가능) 조선·중앙·동아·한국·한겨레·경향 등의 칼럼을 읽고 학문어휘와 시사어휘와 배경지식 극대화 비문학 지문에 대한 구조파악·이해능력/세상을 보는 눈과 통합적 사고력 배양
수업진행	칼럼 60분 문맥속 어휘정리와 확장적 적용 중심문장·주제문 찾기과 요약하기 논지와 논거 찾아내며 논증 익히기 글쓴이 논지의 핵심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해보기 독서 90분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역사/IT기술 정독·다양독과 진학연계독→사실적이해→추론적/비판적이해 →글쓰기→학교생활기록부 등지
특징/효과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매주 1권 읽고 배경지식 극대화와 글쓰기 완성 글쓰기를 통해 이뤄지는 학교수행평가 해결능력 배양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통해 최고의 독해능력 완성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관리, 진학과 진로연계 차별화된 독서활동 관리 →고등진학 면접대비로 연결
보조교재	리딩엠 책갈 위크북 / 주제별 신문칼럼 (신문판형 그대로 인쇄/출력 사용)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임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 미래내 국어 (초등학생)
- 리딩엠 RAMS 솔루션
- 리딩엠 매거진
- 국어문법 완벽정리
-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 학교 수행활동과 평가
- 비문학 독해 완성
- 체계적 글쓰기
- 목적수업 시스템
- 학생부 독서활동관리
- 필독도서 대출시스템
- 주제별 신문칼럼 수업
- 독서이력진단과 관리
- 추천도서와 선택도서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역삼직영
전/화/상/담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52길14 월드메르디앙도곡프라자 2층 213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readingm.com
02.501.0603 직통전화 010.9676.1152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바로 리딩엠의 정체성입니다.

- ▶ 2009년 서울특별시 청년창업프로젝트 우수 아이템 선정
- ▶ 2010년 중소기업청 <신사업아이디어 모델 개발 대상업체> 선정
- ▶ 2011년 EBS 부모60분 방송
- ▶ 2011년 중소기업청 '이노베이션 스토어' 선정
- ▶ 2011년 한국경제 TV [아이디어발전쇼]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는다
- ▶ 2012년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 2012년 <독서이력진단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등록
- ▶ 2013년 KBS1 이규봉, 이지연 아나운서의 <라디오 전국일주> 성공사업장 리딩엠 소개
- ▶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디자인 R&D 지원 대상사업자 선정
- ▶ 2013년 (KIBO/한국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제20130105499호) 획득
- ▶ 2013년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독서활동연구소 인장서 획득
- ▶ 2014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기업 협약서 체결
- ▶ 2014년 (주)리딩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 ▶ 2014년 월간 경제인 '독서교육의 패러다임 제시하는에듀 컴퍼니 (주)리딩엠' 보도
- ▶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선정
'독서활동매니지먼트지도사자격증 1급, 2급'
- ▶ 2015년 YTN 사이언스 청년창업 RUNWAY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리딩엠 편' 방송
- ▶ 2016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수상
- ▶ 2016년 리딩엠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지도교사 양성과정> 제1기 수료
- ▶ 2017년 (KIBO/한국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제2017115265호) 획득
- ▶ 2017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2년 연속 수상
- ▶ 2018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3년 연속 수상
- ▶ 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 2019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4년 연속 수상
- ▶ 2019년 (나이스D&B) 우수기술기업 인증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술"
- ▶ 2019년 머니투데이 주최 「미래창조경영 우수기업 대상」 (혁신교육서비스 부문) 수상
- ▶ 2020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5년 연속 수상
- ▶ 2020년 (나이스D&B) 우수기술기업 인증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술"
- ▶ 2021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6년 연속 수상
- ▶ 2022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7년 연속 수상
- ▶ 2023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8년 연속 수상
- ▶ 2024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 대상」
(초중고 독서활동 부문) 9년 연속 수상

리딩엠 전국 교육센터 현황

목	동	본	원	02-2646-8828
강	남	대	치	02-508-5537
강	남	도	곡	02-573-2161
강	남	역	삼	02-501-0603
강	남	삼	성	02-544-0095
송	파	크	리	02-422-8756
성	동	뉴	타운	02-6015-1939
안	양	평	촌	031-383-8999
송	파	헬	리	02-424-0330
서	초	사	임	02-535-4530
서	초	사	임	02-582-4209
압	구	정	당	02-3444-9510
성	동	행	당	02-2281-9510
인	천	청	라	032-563-0383
인	천	검	단	032-569-4984
인	천	서	원	032-465-3004
경	기	위	레	031-756-0802
남	양	주	덕	031-577-8822
대	전	둔	소	042-477-1399
천	안	불	화	041-565-4979
부	산	해	명	051-363-1939
부	산	해	운	051-703-1517
제			주	064-749-0199

초등반 정규 프로그램부터 중등 방학 특강까지
리딩엠의 노하우로 독서습관을 완성합니다

모든 리딩엠 직영센터에서 상담 및 문의 가능

리딩엠 읽기 프로그램

정규특별과정

전 집 읽어내기



<전집읽어내기>는 20권~60권 내외의 전집을
단계별 커리큘럼에 맞춰 읽어나가는 **리딩엠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국어의 재미가 은하수처럼 펼쳐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 국어** (1~6학년)

- 학교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교재
- 우리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기 위해 미리 만나는 교재
- 교과서 어휘, 받아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쓰기, 원고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재

"저학년때는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를 잘해야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문제 해독능력이 길러져서 다른 과목의 문제들도 잘 풀이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게된 교재가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 국어라는 책이랍니다.
학년별로 따로 교재가 나와있어 우리말에 맞는 1:1 수업이 가능하답니다.
학부모 서평 중



왕중일 지음·리딩엠·값 9,000원
도서구입·인터넷·YES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과 일반서점에서 구입 가능

www.readingm.com



책 읽기 와 글 쓰기 [리딩엠역삼교육센터]
리딩엠 NO.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52길 14 도곡프라자 2층 213호

www.readingm.com **02-501-0603**